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6년 4월

통일부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북한 동향 주요 내용: <u>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u>

※ 예외 경우

① 북한인물 직책 표기 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직책만 표기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생소한 북한 단어는 '괄호'로 설명
ex) 짜고들어(계획하여), 전구(본보기가 될 행동이나 사실, 앞장서는 사람)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④ 월간 보도일지·주요 인물 동정은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나. 주요 인물 동정

o 당 부장급 이상, 내각 상급 이상 등 그 정도 수준의 주요 인물로 한정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월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월간 북한동향에서 인용하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약어로 표기
- 신문, TV, 라디오 : 노동신문 → '노동', 조선중앙통신 → '중통', 조선중앙TV → '조중TV', 중앙방송 → '중방'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북한 동향

강동·중평·연포 온실농장 사회주의경쟁총화회의 진행 · 5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 및 올해의 과업 보도 ····· 6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7
새 5개년계획기간 경제목표달성 위한 규격화사업 추진 ····· 8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현지지도 ·· 9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 현지요해 ···· 10
당의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위한 시·군의 사업성과 선전 ····· 11
해외 주재 북한대사관,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 ···· 12
자력갱생의 기치 강조 ····· 13
1분기 인민경제 계획 완수 및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14
김여정 부장, 李 대통령의 '유감' 표명 관련 담화 16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장, 첫 대남 담화 발표 ···· 17
제3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진행 ····· 18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념' 선전 보도 ····· 19
국방과학원·미사일총국, 중요무기체계 시험 진행 ·· 20
봄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보도 ····· 21
전국의학과학토론회-2026 진행 ····· 22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 23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 ····· 24
'새 지방공업공장의 기술과 경험 배우기' 선전 ····· 26
주요 화학비료공장 계획 초과 생산 주장 ····· 27
문평제련소, 비코크스 유색금속 생산 토대 구축 ··· 28
중앙교육정보중심 운영 선전 ····· 29
국제경기대회 성과 보도 동향 ····· 30
지방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특색있는 발전 강조 ···· 31
'25년 부문별·지역별 최우수과학자·기술자 선정 ···· 33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무기시험 참관 ····· 35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 방북 ····· 36
미얀마 대통령 취임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 37
김일성 114회 생일 관련 동향 ····· 38

일본 외교청서 관련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 39
김일성 생일 관련 4월 각 산업부문 성과 보도 및 증산을 위한 투쟁 결의 ····· 40
김정은 위원장, 태양절 계기 포사격경기 참관 ····· 41
낙원군에 현대적 남새온실농장 건설 ····· 42
일해간석지 건설 올해 중 결속 추진 ····· 43
'맏아들공업'으로서 금속공업 부문의 중요성 강조 44
전국치수전망계획 실행 ····· 45
해외 대사 임명 동향 ····· 46
김정은 위원장,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 47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형 일군상' 제시 ····· 48
제9차 당대회 후속 연구토론회 진행 동향 ····· 50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방북 ····· 51
탄부후원기금 기부자 증가 ····· 52
지방공업공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 활발히 전개 · 53
가뭄 지속 보도 ····· 54
봄철나무심기 성과 선전 ····· 55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상판 연결식 진행 ····· 56
원산 북러친선병원 착공식 진행 ····· 57
북러 정상회담 기념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담화 58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 기념 동향 ····· 59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동향 ····· 61
김정은 위원장, 국방성 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 연주회 관람 ····· 63
지방공업정책의 핵심과제 강조 및 지방의 경제발전 토대 강화 선전 ····· 64
정보통신부문 과업 관철 노력 선전 ····· 66
박태성 내각총리, 평안남도·황해남북도 농사실태 현지요해 ····· 67

주요 인물 동정 ····· 68

월간 보도일지 ····· 83

이달의 북한 약사 ····· 89

주요 동향

강동·중평·연포 온실농장 사회주의경쟁총화회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3.31. 2025년 강동·중평·연포 온실농장 사이 온실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총화회의를 진행(4.1. 노동·중통)

* 참석 : 주창일(중앙위 비서), 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 등

o (총화보고) "2025년 남새생산계획 넘쳐 수행", "과학기술발전에 모를 박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전문지식·기술기능수준 제고"

o "지난해 나타난 결함·교훈 분석총화",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수행계획 첫해에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 제시"

- △"종자문제를 기본으로 기술혁신사업에 힘을 넣어 다수확품종의 남새종자 육종" △"선진적 온실남새재배방법 수용" 등 강조
- △"중평온실농장에 중앙위·내각 공동명의 표창창 및 순회우승기"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에게 농근맹중앙위 표창장 수여"
- "2026년 온실남새생산 제고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요강 발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 노동·중통)

o "2025년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사이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총화회의 3.31. 진행"

o (총화보고) "2025년 남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언급", "온실남새생산단위들에서 과학기술발전에 모를 박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수준 한계단 제고"

o "지난해 나타난 일련의 결함과 교훈들이 분석총화되고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 온실남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제시"

- "종자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기술혁신사업에 힘을 넣어 영양가·생산성이 높은 다수확품종의 남새종자를 육성할 필요"
- "선진적인 온실남새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량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
- "사회주의경쟁순위 발표", "우승을 쟁취한 중평온실농장에 중앙위원회·내각 공동명의로 된 표창창·순회우승기 수여",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에게 농근맹 중앙위 표창장 수여"

o "2026년 대규모온실농장들사이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요강 발표"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 및 올해의 과업 보도

1 개 요

o 북한은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올해의 투쟁과업을 보도, 국가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쓸모있는 산림개조를 목표로 설정(4.1. 노동)

* '15-'24년 산림복구전투 마무리('25년은 완충기의 해), 식수절 계기 사설(4.1.) 통해 2차 사업 돌입 보도

- (1단계, '26-'30년) △산에 남아있는 공간에 지방공업부문 원료림 나무심기 △쓸모없는 산림 개조 △산불감시·통보의 과학성, 생물농약에 의한 산림병해충 구제율 제고
- (2단계, '31-'35년) 채벌한 공간에 나무심기 및 산림개조사업 지속하여 산림축적과 자원생산량을 늘리고 산림의 생태환경보호능력을 개선
- 2차 산림복구사업의 첫해를 맞이하여 나무모 생산보장, 산림개조사업 및 보호관리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심은 나무에 대한 엄격한 담당제 실시 및 비배관리 등 강조

o 북한은 향후 10년간의 산림복구 단계별 목표를 보도, 일반적인 산림조성을 넘어 지방 발전 정책 등 연계한 국가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개조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 노동)

o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올해의 투쟁과업"

- "2차 산림복구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
- "1단계는 2026년-2030년으로서 이 기간에는 주로 산들에 남아있는 부대밭을 포함한 무립목지 등에 지방공업부문 원료림의 나무심기를 끝내고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 산불감시 및 통보의 과학성과 생물농약에 의한 산림병해충 구제율을 높여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
- "2단계 기간은 2031년-2035년으로서 채벌한 대상지와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한 대상지들의 나무심기, 산림개조사업을 계속 내밀면서 보호육성에 힘을 넣어 산림축적과 자원생산량을 늘이고 산림의 생태환경보호 능력을 개선"

o "2차 산림복구사업의 목표들은 일반적인 산림조성이 아니라 실지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쓸모가 있는 산림들로 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함"

o "양묘장들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모를 어김없이 생산보장, 원료림들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산림개조사업 박차, 보호관리사업 큰 힘을 넣어야 함, 심은나무에 대한 담당제 엄격히 실시, 정상적인 비배관리 등"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담화를 발표(4.2. 중통)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03년 첫 채택 이후 24년간 연속 채택

-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조작", "왜곡날조", "허위모략자료" 주장, 규탄배격
-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
-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에 배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오염" 등 유엔의 공정성에 이의 제기
- "중동전역에서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숨지는 비극" 언급 통해 미국·이스라엘 등 우회적 비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 중통)

o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채택"

-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
- "인권 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함."
- "패권 세력의 침략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 질서 유린",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
-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

새 5개년계획기간 경제목표달성 위한 규격화사업 추진

1 개 요

o 북한은 새 5개년계획기간 경제목표 달성 위한 규격화사업 추진 보도(4.2. 노동)

- 공장·기업소에서 각자의 규격으로 부속품 등을 만들어쓰는 행위가 경제전반의 생산소비적 연계를 저하하며 설비·자재·노력의 낭비를 유발한다고 지적
- 특히, 규격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 '국가규격'에 맞는 제품이 생산되지 못해 "연관단위들의 발전에 저해" 언급

o 내각 및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에 대해 규격화사업 관심·혁신 등 요구

- 중앙·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규격 통일, 규격 준수를 위한 제도 등이 있어야 제품의 질제고 및 과학적·책략적 경제관리가 가능함을 강조
- 국제선진규격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함을 언급하며 생산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적용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 노동)

o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을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로 되게 하자면 경제지도와 관리부터 혁신", "중시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규격화사업"

–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 단위에 필요되는 기계부속품이라고 하여 제각기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쓰는 것을 방임", "경제전반에서 생산소비적 연계를 강화할 수 없고 설비와 자재, 노력낭비도 막을 수 없어"

– "기초식품과 같이 중앙과 지방,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규격을 통일시키고 엄격히 준수하는 제도와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생산물의 질을 부단히 높일 수 있고 원가타산도 바로하면서 경제관리를 과학적, 책임적으로"

– "일부 단위에서 국가규격대로 제품생산을 내밀지 못해 연관단위들의 발전에 저해", "경제지도일군들이 규격화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심이 없이, 목적지향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

o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규격화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이에 대한 지도사업과 지도방식을 결정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을 요구"

– "현대과학기술정보의 중요한 원천인 국제규격, 많은 선진기술이 포함", "국제선진규격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생산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현지지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현장을 현지지도(4.3. 노동·중통)

* 식별 : 김재룡(조직지도부장), 리일환(선전선동부장), 김여정(총무부장), 정경택(군정지도부장)

** 김 위원장의 5번째 추모기념관 건설현장 방문(△'25.10.23. 착공식 △'26.1.5. 기념 식수 △2.13. 공사실태 점검 △3.16., 4.3.(보도) 마감공사 실태 점검)

- "총 공사량의 97% 단계"(3.16. 93%)로 "전시, 조각, 상징기념물 설치정형" 점검

o 김 위원장은 "영웅정신을 칭송하는 시대의 기념비", "애국주의 교양의 전당" 언급

- '4월 중순 참전열사 유해 안치식 거행', '쿠르스크 해방 1주년 계기 준공식' 예고

* 쿠르스크 탈환 1주년은 '26.4.26. 또는 4.27로 추정(△러시아 총참모장, '쿠르스크 해방' 발표일(4.26.) △북한 당 중앙군사위 서면입장문(4.27.))

o 파병군 추모·보훈 행보를 지속하며 내부 결속 도모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3.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을 현지지도"

- "전투위훈기념관 공사는 현재 총 건축공사량의 97%단계에서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관의 마감공사실태와 전투위훈내용 배열과 전시, 조각, 상징기념물 설치정형을 요해하고 높이 평가"

o "전투위훈기념관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칭송하는 시대의 기념비, 애국주의 교양의 전당이 될 것"

- "4월 중순 이곳에 참전열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돌을 맞으며 준공식을 진행할 것"
- "이날 전투위훈기념관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해당 부서에 소속시키는 기구안을 비준"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 현지요해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4.1. 화성지구 4단계 구역 봉사시설을 현지요해(4.3. 노동·중통)

* 동행 : 김정은 위원장 딸, 리히용·리일환·조용원(당 비서), 김재룡·한광상·신영일·정경택(당 부장) 등

-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 봉사시설(△자동차정비소 △애완동물상점 △악기상점 △미용실 등) 이용 편의성 점검 시찰 및 김일성 생일(4.15.) 개업 지시

o 문화·봉사시설 확대 지속 강조, 인민 생활 향상 및 성과 과시 의도

- "건설사업에 못지않은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으로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강조, "우리식 봉사문화 창조" 등 과업 제시

* 김정은 위원장, 3.23.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시 "살림집 건설, 문화 봉사시설 확장을 비롯 인민들 삶의 질 개선, 복리 증진" 등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3.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사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준비 정형을 요해"

–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 각이한 운전 기재들의 기술 봉사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종합적인 수리 봉사체계가 훌륭히 구비", "화성지구에 두 번째로 일떠선 운전기재 기술봉사거점"

– "화성애완동물상점, 애완동물들과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관리용품들 판매,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상점", "각종 애완동물관리도구와 사료, 수의약품 생산 실태를 언급, 앞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조"

– "화성악기상점, 연령별, 종류별에 따르는 악기들과 다양한 소모품들을 갖추어 놓고 진열 방법도 새롭게 혁신하여 봉사의 편리성을 보장"

o "문화생활거점 … 관리운영을 잘하는것도 방대한 건설사업에 못지 않은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 "우리 식의 새로운 봉사문화 창조 … 중요과업"

o "김정은 위원장, 화성거리의 봉사자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충직한 복무관점을 지니고 봉사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따뜻이 격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개업할 데 대한 지시"

당의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위한 시·군의 사업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위한 시·군의 사업성과 사례 선전(4.3. 노동)

- (원료기지토대 강화) 함경남도는 "원료기지사업소들의 토대 강화로 생산 활성화 담보", "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강화", "설비·운전기재·물자의 원만한 보장" 선전
- 아울러, "도당책임일군들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시·군 일군들을 각성 분발"시키고 "시·군들에서 원료기지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이 경쟁적"임을 소개

  * "신흥군과 낙원군은 중소농기구 확보, 원료기지들의 지력 개선, 농기계 마련과 자체 제작 병행"

- (현상응모 조직) 강서구역은 "새 제품개발 현상응모 조직, 대중 열의 고조" 선전
- (새로운 생산공정 확립) 자강도 동신군은 "군 식료공장에 발효식초, 군 일용품 공장에 가루비누, 샴푸 등 생산공정 확립" 등 새 제품 증산을 강조
- (상품공급사업 주력) 함북 경성군은 "지역·마을별 인구수와 상품량 파악하여 상품 공급계획 수립"하고, "매월 지정된 날짜에 판매거점에 제품 정상운송"함을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3. 노동)

o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하여"

- "함경남도에서 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이 강화", "성과와 편향들이 분석총화되고 집행을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이 토의, 일군들의 임무분담이 구체화"
-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설비들과 운전기재들은 물론 경영관리에 필요한 물자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
- "도당책임일군들은 화상회의를 비롯 시, 군 일군들을 부단히 각성분발", "시·군들에서 원료기지토대강화를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져"
- "강서구역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밑에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현상응모를 조직"
- "동신군에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 발효식초생산 공정을 군 식료공장에", "군 일용품공장에 가루비누, 샴푸 등 생산공정 증설"
- "경성군에서 지역, 마을별로 인구수와 상품량 등을 요해", "상품공급계획을 세우고 운전기재대수를 확정, 매월 제품들을 판매거점들에 정상적으로 보내"

해외 주재 북한대사관,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

1 개 요

o 주중, 주러 북한대사관은 3.31.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를 진행 (4.4.-5. 노동·중통)

* 중국 연회 참석자 : 리수레이(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대외연락부, 리룡남(주중 북한대사) 등

** 러시아 연회 참석자 : 안드레이 클리모프(《통일러시아》 최고이사회 사무국 위원), 러시아 국방성·내무성·외무성, 신홍철(주러 북한대사) 등

- 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통상적인 행사로 제7차 당대회에도 경축연회 진행

* 제8차 당대회 때는 코로나로 인해 미진행 추정

o △(북중) "전통적 조중친선 공고발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발전" 등 북중, 북러간 친선관계 발전 다짐

※ 4.2. 리룡남 대사,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당대회 결과 설명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4.-5. 노동·중통)

o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기념연회가 3월 31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4.4. 노동·중통)

- (리룡남) "조중 두 당 수뇌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 공고발전,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길에서 중국당과의 단결과 협력"
- (리수레이)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축하,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것을 축원"

o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기념연회가 3월 31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4.5. 노동·중통)

- (신홍철) "통일러시아당을 비롯한 러시아의 여러 정당과의 협조, 협동을 강화,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발전"
- (안드레이 클리모프) "제국주의를 비롯한 악의 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이룩, 확신성 있게 앞으로 나감."

자력갱생의 기치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9기 기간 성과 공고화를 위한 "자력갱생"의 기치 재강조(4.4. 노동)

* 제9차 당대회에서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투쟁노선으로 견지

-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에 이어 "한단계 더 높은 결실" 달성을 위한 자력갱생 독려

o 부문별 자력갱생을 통한 과업 완수예시를 들며 "우리식 사회주의" 위한 투쟁 요구

- 자력갱생은 "전진방식·투쟁전통·발전의 원동력", 이를 통해 "전면적 발전궤도"에 들어서 8기 기간 "불균형·비전형적 발전"을 종식하고 "부문·단위·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었다고 선전
- 또한, 자력갱생이 "안정적·지속적 경제성장*" 및 "인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적 요구"임을 강조

* 연료, 원료, 동력문제 해결 및 생산설비 운영효율 향상, 생산공정의 과학기술적 완비 등

** 수도·농촌 살림집,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 건설, 과학농사 도입, 인민소비품 다종화·다양화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4. 노동)

o "당 제9차대회는 이민위천, 일심단결과 함께 자력갱생의 이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

–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o "자력갱생은 전진방식, 투쟁전통", "개척투쟁, 변혁투쟁은 한해한해가 힘겨웠지만,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궤도에 확고히 들어서"

– "자력갱생, 자생자활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거창한 새시대를 열어놓은 원동력", "지난 5년간은 자립, 자력의 위력으로 진보와 낙후가 병존하는 불균형적, 비전형적인 발전에 종지부",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

– "자력갱생의 기치,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연료, 원료,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생산설비의 운영효율을 높이며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

– "자력갱생의 기치,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

1분기 인민경제 계획 완수 및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4.3.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화상회의), 올해 1분기 인민경제 계획 수행 등 사업 정형을 총화(4.4. 노동·중통)

* 참가 : 박태성(내각총리),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및 내각 성원들

** 진행 :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전달(박태성) → 보고(김덕훈) → 토론 순

- (보고) 1분기 계획 완수 및 계획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분석, 내각 책임제 강화를 위한 전망적·합리적·효율적 지도관리의 실현 강조

- (회의) 향후 9기 기간 △국가경제의 자립화·현대화 제고 △공업부문 생산력 강화 △수도·지방 건설 사업 △교육 수준 개선 △사회주의적 시책 사업 △재해성기후 극복 하 농업생산목표 달성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추진 문제 등 논의

o 이후 인민경제 1분기 계획 완수 성과를 보도(4.5. 노동)

- 각 경제부문(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의 완수 성과 대신 주요 기업소(김책제철, 무산광산, 흥남비료, 북창화력 등) 별 성과 언급, 구체적 실적치는 미보도

* 북한은 월별·분기별, 상·하반기 부문별 인민경제 계획 완수 성과 지속 보도중

** 1분기 인민경제 계획 완수 종합보도(4.5.)에 앞서 기계공업(4.2. 중통), 석탄공업(4.2. 중통), 채취공업(4.3. 중통) 부문의 1분기 인민경제 계획 완수 소식을 먼저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4. 노동·중통, 4.5. 노동)

o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일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4.4. 노동·중통)

– “당 제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4분기 사업정형이 총화”

o (보고) “여러부문, 단위에서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

– “당 제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4분기 사업정형이 총화”

– “1.4분기 계획수행과정에 발로된 결점과 편향들 구체적으로 분석총화”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더욱 강화”,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전망적 지도관리, 과학적·합리적 지도관리, 신축자재·효율적 지도관리 실현 언급”

o (회의) “국가경제의 자립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석탄, 금속, 화학, 전력 비롯한 공업부문의 생산력을 질적으로 강화”

- “수도와 지방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건설과 산업, 국토건설 추진 문제”, “교육 토대와 수준을 개선하여 혁명인재로 키울 문제”,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들 집행 문제 등이 상정”
-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달성”
-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혁신하고 국가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사업 논의”

o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1.4분기 계획을 수행”(4.5. 노동)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4분기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수행”,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가동률 높이기 위한 작업방법 적극 활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난 1월 100만산 대발파 성과적으로 단행하고 또다시 120만산 대발파”,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 보장, 철정광생산에서 양양”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1.4분기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비료생산계획 넘쳐 수행”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설비운영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 전력생산”
- “상원로동계급, 올해 첫 분기부터 높은 증산실적을 기록”, “상원의 투쟁본때를 본받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생산계획 드팀없이 수행”, “천내리시멘트공장에서는 시간당 크링카생산량을 늘임으로써 높은 생산실적”

김여정 부장, 李 대통령의 '유감' 표명 관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무인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4.6.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담화를 당일 밤에 발표(4.6. 중통)

- 李 대통령을 발언을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수반'(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평도 함께 공개

o 단,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지속 견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6. 중통)

o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함."

o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음."

o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

o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장, 첫 대남 담화 발표

1 개 요

o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장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4.6.)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4.7.)*을 '폄훼'하는 담화를 당일 밤에 발표(4.7. 중통)

* 대통령실 등, "남북 정상, 간접적으로나마 신속하게 서로 의사 확인", "남북관계 진전" 등

- 김여정 담화는 "분명한 경고"라면서 우리 반응을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반박
- 또한, 우리의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언급하며 '막말성' 비난
-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로 호칭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 입장 재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7. 중통)

o "한국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

o "(김여정) 담화의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 "그는 아주 짤막한 점잖은 문장과 표현으로써 한국을 향하여 재치있는 경고를 날렸음"

o "《잘했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것들 무리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 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아!》 이것이 내가 읽은 담화의 기본 줄거리임"

o "김여정 부장은 며칠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작된 그 무슨 《결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와중에 한국을 동네개들이 짖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 평"

o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수 없음."

제3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4.4.-6. 3일간 제3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진행(4.7. 노동·중통)

* 참석 : 시·군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비서, 도당 해당부서 일꾼, 지방당 사업 관련 일꾼 등

** 진행 : 개강사(김재룡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 책임비서 사업정형 보고 → 토론 → 강습

*** △1차 강습회 '21.3.3.-6.(김정은 위원장 지도) △2차 강습회 '24.1.25.-28.(김정은 위원장 불참)

o 제9차 당대회 이후 첫 부문별 회의로 시·군당 강습회를 개최, 지역 현장 간부들의 5년간 실적을 평가하고 당대회 과업 관철 관련 주도적 역할을 독려

- '결함, 교훈'으로 시·군당의 기층 당조직 지도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과업으로는 △당중앙 영도에 충실 △지방발전·농촌건설정책 관철 등 언급

* 만경대구역당, 회령시당, 김화군당, 장연군당, 함주군당 등 모범사례로 평가

- 김재룡, '조직지도부장' 직함 첫 언급(제9차 당대회 시 '당 부장'으로만 발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7. 노동·중통)

o "해당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시·군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시,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시·군당 책임비서들을 위한 강습회를 조직"

o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모든 시·군을 당중앙의 영도에 충실한 지역적 보루로, 힘있고 부유하며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및 방법론적 문제들과 실천방도들을 인식시켜 지방발전정책 관철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데 중심"

o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 개선을 위하여 분투하여 온 만경대구역당위원회, 회령시당위원회, 김화군당위원회, 장연군당위원회, 함주군당위원회 등 많은 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당사업정형을 평가"

o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기층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하지 못하고 정치의식제고에 응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로부터 발로된 결함들과 교훈적인 문제들이 언급"

o "강습을 통하여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틀어쥐고 시·군당위원회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방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귀중한 사상정신적 양식과 방법론들을 습득"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념’ 선전 보도

1 개 요

o 북한은 사회주의건축에서 ‘인민대중주의 건축이념’이 과시되고 있다고 선전(4.8. 노동)

- 주요 건축물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 선전

o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념”은 △살림집 건설 △인민을 위한 건축물 △최상의 수준에 맞는 편리성 보장 등에 의해 과시된다고 주장

- (살림집)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 2천여 세대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 “살림집 문제 해결은 전략적 중대 계획이며 새 시대 건설 혁명 수행의 기본 과제”

- (건축물) “명당 자리마다 인민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있는 데서 표현”

  * 평양종합병원,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과학기술전당, 대규모남새생산기지들 등

- (편의성) “선편리성, 선미학성 원칙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편의가 보장”, “건설은 인민들에게 생활방식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혁명 과정”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8. 노동)

o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o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은 인민의 생활과 직결 되어있는 살림집 건설, 당과 정부의 최중대 과업”, “우리 시대의 새로운 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사업,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

– “지난 한 해만 전국적으로 3만 2천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각이한 구조와 형태로 새로 일떠섰다.”

o “다음으로 나라 곳곳의 명당 자리마다 인민을 위한 건축물”, “평범한 인민, 제일 좋고 훌륭한 명당 자리의 주인”

–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o “또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편의가 보장”

–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로 일떠선 경루동의 다락식주택구, 화성지구 새 거리들과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들, 새 지방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 시·군병원들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최상의 문명을 구현한 본보기”

국방과학원·미사일총국, 중요무기체계 시험 진행

1 개 요

o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4.6.-8. △전자기 무기 △탄소섬유모의탄(정전폭탄) △기동형 대공미사일 △집속탄 탑재 전술미사일 시험 진행(4.9. 중통)

* 김정은 위원장 불참, 김정식(당 중앙위 제1부부장) 지도

** 전자기 무기 : 적의 통신·레이더·지휘통제시스템을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무력화

*** 탄소섬유탄 :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 결합 폭탄으로 변전소 등 전력망 파괴

- 북한의 주력 단거리미사일인 '화성-11가형'에 집속탄("산포전투부")을 탑재하여 6.5~7ha(축구장 10개 면적) 초토화 입증 언급

* 집속탄 : 하나의 모탄에 수많은 자탄을 담아 광범위한 지역 파괴

※ 합참, 北 △4.7. '미상의 발사체' 1발 발사, 초기 이상 징후 보이며 소실 △4.8. 08:50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14:20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o 이번 시험은 제9차 당대회 국방과업* 이행과 함께 '현대전 양상' 반영 시도 평가

* "적 지휘중추 마비 전자전 무기 등 특수전략자산 개발" 과업 제시('26.2.26.)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9. 중통)

o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4월 6일과 7일, 8일에 걸쳐 전자기 무기체계 시험과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미사일종합체의 전투적 신뢰성 검증시험,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

- "김정식 대장은 전자기 무기와 탄소섬유탄은 여러 공간에서 각이한 군사적 수단들에 결합, 적용하게 되는 전략적 성격의 특수자산이라고 언급"

o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새끼탄위력평가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

- "미사일총국은 무력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들로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기적인 활동 일환이라고 밝힘."

봄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보도

1 개 요

o 북한은 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각지의 가뭄 피해 방지 노력 현황 등을 소개하며 가뭄피해 최소화 독려(4.9. 노동)

o "밀 보리 이삭당 알수가 규정되는 중요한 시기", "지금 지속되는 가물 현상은 밀, 보리 생육에 부정적 영향" 등 가뭄 피해 가능성 우려

- "가물(가뭄)과의 투쟁에 총력 집중"을 요구하며, 관개체계 효율적 활용 및 일군·근로자들의 책임 역할을 강조

o "3월 강수량(9.6mm)이 평년(18.8mm)의 절반 수준"(3.28. 기상수문국)등 강수량 감소로 겨울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 우려, 최소화 조치 지속 독려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9. 노동)

o "지금 지속되는 가물 현상은 밀, 보리생육에 부정적 영향"

- "밀, 보리 이삭당 알수가 규정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가물 피해를 받으면 목표 이삭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이삭당 알수 감소"
- "농사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
- "모든 농업부문 일군, 근로자들은 밀·보리농사 의의·중요성 자각, 당면한 가물과의 투쟁에 총력 집중 필요"
- "우리에게는 정비보강되고 있는 믿음직한 관개체계 존재", "관개체계가 자기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주목을 돌릴 필요"
- "가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부문 일군·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 책임·역할을 다해야"

o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가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작전·지위 시행"

전국의학과학토론회-2026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4.6.-8.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의학과학 토론회-2026≫ 진행(4.9. 노동)

* △(주제) 새시대 보건혁명과 의학과학기술의 발전 △(참석) 보건부문 과학자·연구사·교원·의료일군

- '25년에 이어 전국적 규모의 학술행사 개최, 6개 부문(위생방역학, 고려의학, 외과학, 내과학, 기초의학, 약학부문) 토론회 진행 및 연구성과·자료 공유

* 코로나19로 부문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5년부터 대면회의 재개

o 의료봉사의 질 제고 및 실천적·기술적 역량 강화 강조 지속

- 예방의학 및 위생방역 사업 강화, 고려의학의 과학화 등 중점 추진 전망

* "사회주의보건이 자본주의보건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월성은 예방을 앞세우는데 있어", "의사담당구역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위생선전과 위생관리 정상화 중요"(4.10.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9. 노동)

o "≪전국의학과학토론회-2026≫ 진행"

- "토론회에서는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이고 보건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이룩된 연구성과들이 발표"
-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 치료예방과 위생방역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 등을 반영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
- "고려의학을 과학화, 현대의학 발전추세에 맞는 진단과 치료방법 습득, 임상기술 수준·자질 제고 문제를 비롯하여 의학과학기술을 상향시키고 인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자료들이 호평"
- "토론회에서는 중앙질병예방통제소, 의학연구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김만유병원, 류경치과병원, 평양의학대학 등 과학자, 연구사, 교원, 의료일군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4.9. 인민문화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진행(4.10. 노동·중통)

* 참가 : 중앙·평양시 당·행정·근로단체 일꾼, 무력기관·과학·교육·문학예술·출판보도 부문 및 당간부 양성기관 이론선전일꾼

** 발표 : 리일환(당 비서),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전승국(내각부총리), 리영식(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식(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안현민(당 부부장)

o 동 토론회는 '제9차 당대회 제시 사상·정책의 체득·관철'에 목표를 두고 진행

- '5대 시대적 요구', '3대 이념', '다극세계 건설', '새시대 5대 당건설 강령' 등 당대회 핵심 기조를 반복하며 김 위원장의 사상·영도에 충실할 것을 요구

* 북한은 제9차 당대회 후속조치로 각급 당위원회 및 근로단체 전원회의, 군민(軍民)연환대회, 궐기대회 등을 진행, 당대회 사상·정신을 전파하고 과업 관철 분위기를 확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0.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한 사상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o "당 제9차대회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투쟁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중대한 정치적 사변"

o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속도를 가속화하고 인민의 이상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과제"

o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확신성 있게 떠미는 조선혁명 고유의 불변의 이념"

o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추동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

- "국가방위력을 멈춤·한계없이 확대진화, 미국을 위시로 한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

o "새시대 5대당건설강령을 틀어쥐고 완벽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은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사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

o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전면적 국가 발전의 최전성기, 거창한 새 변혁시대를 힘차게 개척"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

1 개 요

o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9.-10. 방북하여 최선희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 개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4.10.-11. 노동·중통)

* (일정) △1일차(4.9.) : 평양 도착(최선희, 왕야쥔 맞이) → 최선희 외무상 회담, 환영연회
△2일차(4.10.) :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참배 → 김정은 위원장 면담 → 평양 출발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19.9. 이후 6년 7개월 만 △'25.9. 최선희 외무상 방중, '25.10. 리창 중국 총리 방북 이후 6개월 만에 고위급 교류

o (외교장관회담) 북중 간 교류·협조 심화, 대외정책기관 간 전략적 소통·지지협력 강화 합의

* 배석 : △(북)김명수(외무성 부상), 외무성 일꾼들 △(중)외교부장 일행, 왕아군(주북 중국대사) 등

-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모두, '작년 9월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중친선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

o (김정은 위원장 면담) 전통적 북중친선 강화 및 국제문제 견해 공유

* 배석 : △(북)김성남(국제부장) △(중)왕아군(주북 중국대사), 화춘영(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정상간 안부 전달 이후 '지속적 래왕·접촉 심화, 호상지지와 협력 강화' 언급. 특히, "하나의 중국" 등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 지지

* "하나의 중국, 령토완정" 관련 김 위원장 발언 북한 매체 최초 공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0.-11. 노동·중통)

o "최선희 동지가 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왕의 동지와 회담"(4.10. 노동·중통)

- (최선희) "조중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발전",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념",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
- (왕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 … 중조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이정표적인 의의"
-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이 되는 올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0일 왕의 동지를 접견”(4.11. 노동·중통)

- (김 위원장) “습근평 동지에게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 “래왕과 접촉 심화, 호상지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 지정학적 형세와 두 나라 전략적 이익의 견지에서 중요”, “지역 및 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입장을 피력”,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나라의 영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

- (왕이) “중조친선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명”

‘새 지방공업공장의 기술과 경험 배우기’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각지의 일군·근로자들이 새 지방공업공장을 찾아와 새 제품개발의 성과와 경험, 품질 제고 기술 등을 배우고 있음을 선전(4.10. 노동)

- 김화군 공장은 "수천명의 경공업 일군·근로자들이 참관", 식료공장의 경우 "깨고추장 생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공장·기업소 일군들이 찾아옴"을 강조

  * 특히, 김화군식료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기들 일터에 대한 애착심,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경험을 전수했다고 언급

- 정평군 식료공장은 "황해남도 식료공장·해주기초식품공장의 일군·근로자들과 문천시 식료공업공장의 책임일군들이 찾아와 밀된장 생산 성과와 경험을 습득"함을 선전

- 장연군 식료공장은 "식료공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찾아와 장연군의 맥주 생산기술과 그 공정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배웠다"고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0. 노동)

o “새 지방공업공장들에 경험을 배우러 온다.”

- “산골군이였던 김화군이 오늘은 중앙과 도시의 경공업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찾아오는 흥하는 지역”
- “전국각지에서 수천명의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곳을 참관 … 김화군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깨고추장의 맛은 하도 좋아 … 기술을 배우기 위해 … 수많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 식료공장들과 해주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로 정평군식료공장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고 이 공장의 우수한 밀된장생산기술을 습득”
- “문천시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업부문의 여러 공장 책임일군들도 … 정평군식료공장을 참관 … 밀된장생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
- “장연군식료공장 맥주도 날이 갈수록 전국의 관심. 다른 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장연군식료공장을 수시로 찾아와 맥주생산기술과 그 공정확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배우고”

주요 화학비료공장 계획 초과 생산 주장

1 개 요

o 북한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애국적 증산투쟁을 벌여 계획보다 비료를 초과생산하였다"고 선전(4.10. 노동)

* 남흥청년화학기업소(1976년), 흥남비료연합기업소(1974년)는 각각 연 79만톤, 42만톤 요소비료 생산능력

- 기술혁신 운동, 표준조작법 개정 등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면서 5천여 t의 비료를 더 생산하였다"고 주장

o 지난 5년간 비료생산이 확고한 정상궤도에 돌입, "제9차 당대회 이후에도 증산 절약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선전

- (남흥청년) "증산예비탐구", "정치사상사업", "기술혁신운동", "생산조직과 지휘 개선" 등으로 설비 가동률 향상 및 원단위 소비기준 효율화
- (흥남비료) "전 공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기술지표 개선 및 표준조작법 개정, 무연탄을 절약하면서 시간당 가스생산량을 늘리는 성과 달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0. 노동)

o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분기해 나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과 노동계급이 애국적 증산투쟁"

–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 질소비료를 계획보다 5천여t 더 생산"

o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올해의 첫달부터 증산예비탐구의 열풍으로",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어"

– "생산활성화의 기본고리는 더 많은 무연탄을 절약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이러한 혁신은 봉탄의 질제고로 이어지고 발생로직장에서의 시간당 가스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져"

– "1/4분기간 남흥에서는 매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원단위 소비기준이 저하"

o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도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받들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고조", "전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

– "발생로운영에서의 기술지표들을 개선하고 표준조작법을 새롭게 개정", "이는 가스발생공정에서 매월 적지않은 무연탄을 절약하면서 시간당 가스생산량을 늘이는 성과로"

– "요소직장에서도 생산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 생산자대중이 떨쳐나 원단위 소비기준을 대폭 낮추었으며 물전해직장에서는 기술관리를 혁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면서도 적지 않은 전기를 절약"

문평제련소, 비코크스 유색금속 생산 토대 구축

1 개 요

o 북한은 우리식의 유색(비철)야금 공업법으로 '회전로-전기로법에 의한 연(납)제련' 공업을 창설, 생산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4.12. 노동)

- △20년 전부터 코크스에 의한 유색금속 생산에 종지부, 주체화 추진 △최근 3년간 우리식으로 확립된 주체적인 연생산공정의 운영기술 부단히 향상 등 선전

  * 문평제련소 : 북한 동해안 최대 종합 비철금속 생산기지, 3.5만 톤의 연 제련능력 보유

o "새로운 공정으로 생태 환경 개선, 코크스를 사용할 때보다 공정운영이 간편해지고 생산이 장성하였다"고 자평

  * 북한은 코스크(수입 의존) 대신 무연탄을 이용한 자체 공법 개발 추진, 뚜렷한 성과는 미흡

o "연 제련 기술이 우리식으로 새롭게 개척된데 이어, 새 기술개척에도 나서고 있다"고 선전

- 제련 과정에서 폐가스를 회수하여 류산(황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확립사업 추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2. 노동)

o "문평제련소에서 우리 식의 유색야금공업을 창설, 끊임없는 생산장성 이룩"

- "비콕스제련법의 하나인 취입관식산화로법에 의한 유색금속생산방법을 받아들여 기술공정을 완성하였지만 로운영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
- "회전로법으로 소결광을 만들 수 있다는 착상", "세상에 없는 회전로-전기로법에 의한 연제련공법을 창설"

o "최근 3년간 주체적인 연생산공정의 운영기술을 부단히 향상"

- "주체적인 연제련공정확립으로 생태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많은 경제적 실리"
- "콕스에 의한 생산때보다 설비대수나 로력이 대폭 줄어들고 공정운영이 훨씬 간편해진 결과 생산장성",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특등으로 평가"

o "폐가스를 회수하여 류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확립사업 달라붙어"

- "농도가 낮은 폐가스로는 류산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기존방식에 도전"

중앙교육정보중심 운영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중앙교육정보중심(센터) 운영 선전(4.12. 노동)

- 각 도에 설치된 교육지원프로그램중심(센터)*를 망라하는 교육 정보화의 주요 거점으로 교수자원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관리·보급 역할 수행

* 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제품화를 실현하는 교육과학연구단위로 정보화 자료들과 프로그램 수집·분류·저장·보급 기능 수행, 국가교육정보체계 가동('25.12.9.)

o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운영·관리 확대, 교육의 정보화·현대화 추진

- 전국 단위 교육망 운영 및 자원 보급 활성화,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노력

* "중앙교육정보중심에서는 중앙의 우수한 교수자원들을 지방의 교육기관들에 신속히 보급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음."('26.1.18.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2. 노동)

o "비약의 나래를 달아준다, 중앙교육정보중심을 찾아서"

- "중앙교육정보중심이 현대적인 정보설비들을 갖추고 20대의 쟁쟁한 인재들로 보강되어 강력한 연구 및 개발집단으로 강화하고 있음."
- "중앙교육정보중심은 각 도의 교육지원프로그람중심들을 망라하는 교육정보화의 주요거점으로, 교육정보관리중심, 교수자원보급중심, 교육지원프로그람개발 및 연구중심으로서의 사명 수행"
- "(교육전용망 운영실) 전국의 대학, 학교들의 교육부문 전용망 리용정형, 운영실태를 실시간적으로 료해"
- "(교육정보화 연구실) 교육정보화발전계획 수립중, 현재 단계별, 년차별 교육의 정보화, 수자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가 작성되고 있음."
- "(다매체편집물 연구실) 각지에서 보내오는 다매체편집물에 대한 심의 강화, 프로그람개발단위들과의 연계밑에 교수자원들을 완성하여 보급"

북한 국제경기대회 성과 보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2026년 「AFC U-20 여자 아시안컵」 경기대회 소식 보도(4.10., 4.16. 노동·중통)

* △(장소) 태국 △(일정) 4.1.-18. △(참가국) 12개

- 동 경기는 △3개 조로 나누어 진행 △북한은 B조 1위로 8강 진출

* △(A조) 태국,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B조) 한국, 북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C조) 일본, 호주, 대만, 인도

- 한국팀을 3:0으로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 일본팀과 결승경기(4.18.) 진행 한다는 소식을 노동신문에 보도

* 경기 결과 : △(우승) 일본 △(준우승) 북한 △(3위) 한국·중국

o 또한, 아시아 △레슬링선수권(키르키스스탄, 4.6.-12., 메달 4개) △권투선수권(몽골, 3.28.-4.11., 메달 3개) △유도선수권(중국, 4.16.-19., 메달 3개) 성과 선전(4.14., 4.18. 노동·중통)

o 북한은 매년 국제체육경기 대회 성과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0.-18. 노동·중통)

o "아시아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아시안컵경기대회 준준결승경기에 진출"(4.10. 노동·중통)

- "우리 선수들은 종합점수 9점을 획득하고 조에서 1위의 성적으로 준준결승(8강) 경기에 진출"

o "아시아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아시안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 진출"(4.16. 노동·중통)

-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드센 공격을 들이대며 상대팀을 압박"
- "한국팀을 3:0으로 이기고 결승경기 진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18일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진행"

o "2026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4.14. 노동·중통)

- "김광명 선수 … 인디아 선수를 13:10으로 이기고 우승", "리세웅, 김선향, 문현경 선수들이 2위"
- "2026년 아시아권투선수권대회 … 안금별, 원은경, 황효순 선수들이 각각 2위"

o "2026년 아시아유술(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4.18. 노동·중통)

- "김현아, 문성희 선수들이 … 금메달을 쟁취", "김지혜 선수는 … 2위"

지방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특색있는 발전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지난 해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원료문제 해결, 특산품 활용, 생산 정상화 노력를 소개하면서 지역 일꾼의 "사상관점과 일본새" 강조 보도(4.13. 노동)

- (은천군의 원료문제 해결) "단고구마를 원료작물로 선택하여 지난해 백수십 톤 생산, 올해 목표 달성 시 내년부터 식료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
- 아울러, "지방공업발전의 잠재력과 밑천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달려있다"고 언급
  * '25.1. 황해남도 은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특산품 활용·인기) 운산군(잣가공품 등), 우시군(다래단졸임 등), 동신군(오디 음료), 김형직군(호박씨 기름 등)의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의 전국 수요 증가 등 인기 선전
  * 평북 운산군('25.2.), 자강도 우시군('25.1.)·동신군('25.2.), 양강도 김형직군('25.2.) 지방공업공장 준공
- (원료보장 등 생산 정상화) 김정숙군은 "많은 면적의 기름나무림 조성", 부령군은 "기능공 역량 강화", 염주군은 원료기지의 확대를 위한 "갈밭 개간" 진행 강조
  * 양강도 김정숙군('25.12.), 함북 부령군('25.12.), 평북 염주군('25.12.) 지방공업공장 준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3. 노동)

o "지방경제를 자립성이 강하게, 특색있게 발전"

- "은천군, 올해 군에서 계획한 양의 당원료를 생산하게 되면 다음해부터는 군식료공장에 필요한 당원료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보장"
- "군에서는 단고구마를 당원료작물로 선택", "지난해 백수십 t의 단고구마가 생산되어 당원료 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려"
- "군의 현실은 지방공업발전의 잠재력과 밑천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달려"
- "산골군들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질 높은 제품들이 지역의 지경을 벗어나 각지로 퍼져"
- "운산군식료공장의 갖가지 잣가공품들",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각지의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보내줄데 대한 요청이 전국각지에서 쉬임없이 제기"

- “북방의 두메산간인 우시군, 특산품인 다래단졸임, 배단졸임, 살구단졸임은 수요에 생산이 미처 따라서지 못할 정도”
- “산간벽촌인 동신군, 오디를 원료로 하여 맛과 색깔이 독특한 음료제품을 개발”, “새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
- “김형직군, 호박씨 기름은 이 고장에 오는 사람들의 제일가는 기념품”
- “김정숙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면적의 기름나무림을 조성”, “부령군은 기능공역량강화에 큰 힘을 넣어”, “염주군원료기지사업소에서 수십정보의 갈밭 개간을 힘있게 다그쳐”

'25년 부문별·지역별 최우수과학자·기술자 선정

1 개 요

o 북한은 '25년 성·중앙기관·도 단위의 최우수과학자·기술자를 선정(4.13. 노동·중통)

-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인재 선정 사업을 통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선전

o 당 인재중시사상 관철을 위해 국가과학위원회와 연계, 엄격한 선발과 심의를 통해 △성(금속공업성·전력공업성·철도성) △지역(함경남도·강원도) 인재들을 평가·선정

- (금속) "우리식 에너지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우는 데서 핵심적 역할", "연속 조괴기(주조기)베어링강 생산공정확립에서 높은 실력 발휘"
- (전력) "전력공업연구소 실장·황해북도 송배전부 공업기술연구소 소장,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 해결에 큰 기여"
- (철도) "철길다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수 있는 시공방법 창안·도입", "파수지(윤활유)로 철길 고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공정을 세우고, 현장 도입 실현"
- (지역) △함남, "펩티드 영양제품* 개발·생산기술 연구·완성, 기능성 영양제 제조공정 확립" △강원, "수질과 주변환경 개선에 유리한 바닥식 양식방법** 도입" 등

* 아미노산 2개 이상 연결된 저분자 단백질

** 수산생물을 해저나 바닥면에 붙이거나 놓아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기르는 양식 방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3. 노동·중통)

o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나가야"

- "해당 부문과 지역들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연계 밑에 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선정 사업이 당의 인재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 "올해에만도 수십 명이 2025년 성, 중앙기관, 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선정"

o "금속공업성 최우수과학자, 기술자의 영예"

- "우리 식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우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설계원", "연속조괴기에 의한 베어링강 생산 공정 확립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o “전력공업연구소 실장, 황해북도송배전부 공업기술연구소 소장도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큰 기여, 전력공업성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되어”

o “철도성 최우수과학자, 기술자인 평양교통운수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는 철길다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수 있는 독특하고 기발한 시공 방법을 창안도입”,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

- “청진철도칠감공장 지배인 공훈기술자 박사도 파수지로 철길고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공정을 세우고 현장도입을 실현하여 철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

o “펩티드 영양제품들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완성”, “식료 가공 부산물로 기능성 영양제의 제조공정을 확립한 함흥약학대학 연구사 박사”

- “물고기자원과 호수밑지형을 탐사할 수 있는 초음파탐지기를 제작, 유리섬유 강화수지배 등의 항해관리체계, 조종체계 등을 개발구축한 장진군 과학기술위원회 연구사”, “함경남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

o “강원도에서는 수질, 주변환경 개선에 유리한 바닥식 양식방법을 연구도입한 원산수산대학 연구사 박사, 농기계, 당과류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한 조군실원산공업대학 연구사가 최우수과학자, 기술자 대열에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무기시험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4.12.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여 '작전운용 평가' 일환으로 진행된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4.14. 노동·중통)

* 식별 : 조춘룡(군수공업부장),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박광섭(해군사령관)

** 김 위원장은 3.4., 3.10.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시험발사 재참관

- 전략순항미사일(2발)·함대함 미사일(3발) 발사를 통해 '무기통합체계' 점검

o 김 위원장은 "핵전쟁억제력 확대강화는 불변한 방위노선, 최중대 선결과업" 언급

- 3·4호 구축함도 거론하며 '해군력 강화 기조' 지속 시사

o 이번 무기시험은 최현호 취역을 앞두고 군사기술적 수요 차원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4. 노동·중통)

o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미사일 시험발사가 4월 12일 또다시 진행"

- "시험발사는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복무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
-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 발사",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

o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새로 건조하는 구축함 3호, 4호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받고 중요결론"

o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만족 표시"

o "김정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노선이며 최중대 선결과업이라고 언급"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 방북

1 개 요

o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이 4.13. 방북(4.14. 노동·중통)

* 단장 : 세르게이 체르노가예프 위원장

** 맞이 : 김성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울라디미르 토페하(주북 러시아 임시대리대사)

o 대표단 △조선직업총동맹과 회담(4.14.)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담화(4.19.) △만경대 방문 등 활동

- 회담에서 양국 직업동맹 간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북한 직맹과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간 친선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4., 4.20. 노동·중통)

o "리원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세르게이 체르노가예프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4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4.14. 중통)

-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조로친선관계에 상응하게 두 나라 직업동맹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 "회담 후 친선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

o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평양의사당에서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을 만나 담화"(4.20. 중통)

o "대표단, 만경대 방문하여 기념사진", "국제친선전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326전선종합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해방탑과 정백사원 방문"(4.20. 노동·중통)

미얀마 대통령 취임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1 개 요

o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얀마 대통령 취임 관련한 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4.14. 중통)

* 4.3. '21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 당선

- 새로 선출된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제9차 당대회 이후 실리추구 및 외교다변화 등 공세적 외교 기조 일환

- 동 선거에 대해 서방이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 북한은 중·러와 입장을 같이하며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미얀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4.10.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특사/대표단 파견

- 특히, 미얀마는 '유라시아 헌장' 참여국으로서 지지를 통해 공고한 반서방 연대를 과시

*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이란, 미얀마는 미국 중심의 단극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다극화를 추구하는 '유라시아 헌장'을 추진하는 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4. 중통)

o "미얀마에서 국회총선거가 진행되고 헌법적 절차를 거쳐 선거된 대통령이 정식 취임함으로써 5년간의 정치적 과도기가 종식되고 국가사회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데 대해 유의"

- "미얀마에서 공고한 사회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평화롭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려는 미얀마 인민의 지향과 선택을 존중"
- "미얀마에서의 새로운 정세발전이 나라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실현하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평화와 정세 안정에로 이어지기를 기대"

김일성 114회 생일 관련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김일성 114회 생일(4.15.)을 맞아 경축행사 개최

- 김정은 위원장, 4.15.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포사격경기 참관(4.16. 노동·중통), 금수산태양궁전은 4년 연속 미방문

  * 김일성 생일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총 5회 미방문('20년, '23-'26년)

-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30.) △근로단체 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 △외국정부·동포단체·해외인사 등 꽃바구니 전달

  * 친선예술축전을 역대 최장 기간(30일) 진행 △대외적으로 우호국과의 교류 증진 △대내적으로 '인류 공동의 명절' 선전에 활용하며 축하 분위기 조성

o 예년(비정주년) 수준의 경축행사 진행, 김 위원장 중심 대내 결속을 도모

- 관영매체를 통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을 김정은이 계승·구현했다고 선전하며 김정은 영도에 충실 및 당대회 과업 관철 독려

- "태양절" 용어 제한적 사용 경향도 지속, 김 위원장의 독자적 위상 부각

  * (노동신문 "태양절" 기사) '23년 46건 → '24년 1건 → '25년 12건 → '26년 12건(4.1.-16.)

- '민족최대의 명절' → '인민의 최대의 명절'로 변경(4.15. 노동 1면 상단 배너)

  * '25.12.17. 김정일 사망일부터 선대의 기념일에 '민족' 표현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 다만, 보도에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1회 사용(4.16.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5. 노동)

o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4.15. 노동)

- (이민위천의 사상) "인민을 스승으로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치신조가 반영",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집대성",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킬 데 대한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음."

-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장군님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음.", "위민헌신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함.",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함."

일본 외교청서 관련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1 개 요

o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일본 2026 외교청서와 관련된 담화를 발표(4.15. 중통)

* △일본, 「2026 외교청서」 발표(4.10.)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백서, 전년도 일본 외교활동 및 국제정세 등을 평가, 향후 외교방향을 제시

- '24년, '2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외교청서가 발간됐으나, 당시 北 미반응

o △주권행사 간섭 주장 △미국 간접비난 △일본 '군국주의화' 등 비난

- 핵보유국 지위 헌법 명시 강조하며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반발

*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이러쿵저러쿵 시비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음."

- 미국에 대해 패권, 이란 침략 등 '상전의 특급불량배적 행태'로 간접 비난

-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위해 주변국 주권행사를 비난*하는 '모략문서'로 폄하

* 외교청서에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시도, 대만 갈등 상황 등 거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5. 중통)

o "얼마 전 일본은 상투적인 강도적 논리와 어불성설로 엮어댄 《2026년 외교청서》라는 것을 공표"

-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어보려고 망상하면서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이러쿵저러쿵 시비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음"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주장"
- "일방적인 패권을 노리고 침략과 무력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는 상전의 특급불량배적 행태에 대해서는 함구", "미국의 속국에 불과한 일본"
- "외교청서는 제2의 제국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급진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일본당국의 군국주의 행보를 분칠하기 위한 철두철미 모략문서"

김일성 생일 관련 4월 각 산업부문 성과 보도 및 증산을 위한 투쟁 결의

1 개 요

o 북한은 4월 김일성 생일(4.15.)을 맞아 석탄·농업·금속 등 각 산업분야에서 성과 보도 및 증산을 위한 투쟁 결의(4.15. 노동)

o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4월에 보다 높은 생산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일정 계획보다 수천 t의 석탄을 증산했다"고 보도

- 선전선동대·방송선전차 등 선전선동역량 및 수단 총집중하여 김일성 생일을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실시
- 연합기업소 내 탄광별 증산 방도를 강구, 해당하는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추진

* △(풍곡청년탄광) "합리적 작업방법" 도입, "집단주의기풍" 발휘, 일일계획 135% 수행 △(회안청년탄광) 채탄중대별경쟁으로 석탄 증산 △(남덕청년탄광)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혁신운동 전개, "한탄차더하기" 등 대중운동 실시

- 지상단위 노동자 및 탄광마을 여맹원들의 석탄증산성과에 대한 기여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5. 노동)

o "4월에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들", "지난 14일까지 일정계획보다 수천 t의 석탄을 더 캐내는 위훈을 창조",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 "집중강연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와 방송선전차 등 선전선동역량과 수단들을 총집중", "연합기업소의 모든 탄광들이 충성과 보답의 열기로 들끓게"
-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연합기업소 일꾼들", "증산의 방도를 찾아내어 해당한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세워"
- "풍곡청년탄광,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 "매일 계획을 135% 이상으로 넘쳐 수행"
- "회안청년탄광, 불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 채탄중대별경쟁을 맹렬히 벌려 매일 많은 석탄을 캐내어"
- "남덕청년탄광, 석탄증산의 담보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명심",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교대당 한탄차더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석탄생산성과를 확대"
- "지상단위의 노동자들과 탄광마을 여맹원들도 4월의 명절을 자랑찬 석탄증산 성과로 맞이하는데 이바지"

김정은 위원장, 태양절 계기 포사격경기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4.15. 김일성 생일 계기 포병부대 간 사격경기 참관(4.16. 노동·중통)

* 영접 : 노광철(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김성기(총정치국장) 등 국방성 지휘관, 군정지휘관

** 진행 : 포사격 경기 → 우승 부대에 상장·메달·휘장 수여 → 기념사진 촬영

- '선대의 강국건설 염원 해소'로 의미부여하며 '군대의 본분' 거론

o 김 위원장은 "포병 현대화 구상 관철"과 "훈련의 중요성" 강조

- "포병은 전쟁 승패 결정 요인"으로 "국방 5개년 기간 포병 현대화 관철" 언급

- "인민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훈련", 임전태세 강조

o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태양절 당일 첫 포병 훈련 참관

- 내부 결속 및 당대회 과업("포병 현대화") 점검 차원으로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6.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참관"

-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포사격경기가 훈련열의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데 만족 표시"

o "포병무력의 활용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민군대는 포병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함."

-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계획 기간 안에 포병무력 현대화에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 철저히 관철 강조"

o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훈련밖에 몰라야 한다고,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강군건설 염원을 풀어드리는 길이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군대의 본분이라고 언급"

낙원군에 현대적 남새온실농장 건설

1 개 요

o 북한은 "낙원포에 현대적인 남새온실"을 건설 중임을 보도(4.17. 노동)

- "△2개 호동의 유리수경온실 △수십개 호동의 박막온실 △후생건물 △남새저장고 △남새판매소 △탄산가스생산장 △영양액공급장 △지열·상수뽐쁘장" 등 건설

o 현재 "기초굴착공사 완료 및 기초콘크리트치기 단계 돌입" 상태로 "온실에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였음"을 선전

- "도에서는 유능한 일군들, 기능공들로 지휘·건설역량 편성", "자재보장, 능률적 건설장비 보급 등 노력"
- "수경재배기술과 종합적 영양액분석체계 도입", "지능형통합생산체계 확립"

o △중평 △연포 △강동 △신의주 등 대규모 온실농장에 이어 향후 지역별 중소규모 온실농장 건설 지속 추진 예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7. 노동)

o "복받은 낙원포에 현대적인 남새온실 건설"

- "2개 호동의 유리수경온실, 수십개 호동의 박막온실과 함께 사무청사, 후생건물, 남새저장고, 남새판매소, 탄산가스생산장, 영양액공급장, 지열 및 상수펌프장 등 구획별로 건설"

o "온실들에는 수경재배기술과 종합적인 영양액분석체계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기술 도입"

- "지능형통합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온습도와 빛조절, 안개분무, 영양액공급 등을 품종별 특성에 맞게 자동 조종"

o "도에서는 유능한 일군들과 기능공들로 지휘 및 건설역량을 강력하게 편성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해당 단위들에 능률적인 건설장비들을 갖추어주는데 노력"

o "착공한지 불과 50여일 만에 방대한 기초굴착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기초콩크리트치기가 본격적 단계 돌입"

일해간석지 건설 올해 중 결속 추진

1 개 요

o 북한은 "다음해까지 계획하였던 일해간석지건설, 올해 중 결속 목표" 등 보도(4.17. 노동)

- 올해 목표는 "1차물막이공사 결속"이었으나 "석달 남짓한 기간 총방조제구간의 40%이상까지 방조제 전진"하는 등 공사 진척
- "정주시 일해지구로부터 흑록지구까지 방조제 건설, 700여 정보 새땅 마련 목표"

o "우수한 경험" 등을 기반으로 공사시 자재절약 및 공사속도 개선 가능함을 언급

- △"수지물주머니 발파방법" △"조금기간 방조제 건설" △"합리적 물빼기대책, 도갱 형태에 따른 천공배치" 등 설명

o 제9차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간석지 개간", "간석지 농사" 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간석지 건설 지속 독려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7. 노동)

o "다음해까지 계획하였던 일해간석지건설을 올해 중에 끝낼 대담한 목표"

-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총방조제구간의 40%이상까지 제방 전진", "원래 기업소에서는 올해 1차물막이공사 결속 목표"
- "정주시 일해지구로부터 흑록지구까지 방조제를 쌓아 700여 정보 새땅 마련"

o "현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지난 시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 앞선 공법 수용 시 공사속도 개선 확신"

- "새로 도입한 수지물주머니에 의한 발파방법에 관심", "방법 수용 시 훨씬 많은 막돌과 흙 마련, 연유·자재·화공품 절약 가능"
-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조금기간에는 낮게 성토하는 방식으로 방조제 건설, 사리기간에는 방조제 보강해 공사속도 개선 및 연유 절약"
- "곽산간석지건설대 작업장에서 물 뿜어져나오는 사고"가 있었으나 "합리적 물빼기대책 마련, 도갱의 형태에 맞게 천공배치 수정 등 굴진을 중단없이, 빨리 내밀 수 있는 방도 마련"

‘맏아들공업’으로서 금속공업 부문의 중요성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국가경제의 중추인 기간공업 부문에서 철강재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속공업 부문을 ‘나라의 맏아들공업’으로 호칭(4.17. 노동)

- △“철강재가 많아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 원만히 보장”, △“나라의 맏아들공업인 강철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
- 금속공업 부문 일꾼들에게 보신주의와 보수주의, 경험주의 타파와 책임성 발휘 당부하며 철강재 증산을 독려

o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금속공업성의 ‘주체철 생산체계’ 완비 등 과업달성 독려 및 철강재 증산 위한 기업별 노력동향 보도

* △김책제철 용광로 가동률 제고 공정 확립 △무산광산 철정광의 질 제고 사업 등

- 또한, 기업소별 당원들의 주도적 역할 강조하며 증산 성과 독려

* △김책제철 대형산소분리기 순환수펌프 가동 설비 보수 △무산광산 100만산 대발파 준비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7. 노동)

o “기간공업부문의 토대를 다지는 것은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 “맏아들공업인 금속공업부문의 역할은 관건적”

o “철강재가 많아야 생산능력확장 등 기간공업 부문의 발전잠재력 축적”,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 동력 등을 제때 원만히 보장”, “당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

– “나라의 맏아들공업인 강철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

o “금속공업성, 새 전망계획기간 철강재생산장성을 위한 새공정확립과 개건목표”

– “김책제철 용광로들의 가동률 끌어올릴 수 있는 공정확립”, “무산광산 생산 정광의 품위 제고 사업, 공장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철강재 생산 가능”

– “새로운 생산공정들의 확립과 공정개건을 위한 기술준비 올해중 끝낼 목표”

o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일터마다 분발, 당원들이 앞장”

– “김책제철 분공장 당원들, 대형산소분리기의 순환수펌프의 가동 보장 설비를 시급히 보수할 과업, 당원들이 설비보수기일 단축”

– “무산광산 당원들, 철정광 생산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

전국치수전망계획 실행

1 개 요

o 북한은 올해부터 전국치수전망계획(2026~2040) 실행 보도(4.17. 노동)

* "국가적으로 큰물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치수전망계획 작성, 중앙의 지휘밑에 년차별·단계별로 내밀수 있는 담보마련"('25.12.15. 노동)

- 전망계획은 ①물재해 극복능력 제고 ②물자원 지속 이용 ③물환경 및 물생태계 보호 ④통일적 물관리체계 구축이 목표
- 올해는 계획의 첫 해로 △전국적범위에서 계획된 강바닥파기, 제방 성토, 장석쌓기 △장마철 이전 청천강 제방 건설 및 보강공사 완료 등이 과제

o 치수사업을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 중앙의 통일적 지휘 아래 연차별·단계별 집행

- 재해 대응 뿐 아니라 물자원 활용까지 강조, 인민생활 및 경제발전에 기여

* "큰물과 폭우 등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치수사업.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들이 많고 해안선이 긴만큼 물을 잘 다스려야 큰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변의 면모도 개선할수 있음."('26.3.5.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17. 노동)

o "치수전망계획 단계별 과업을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수행하자"

- "치수사업을 잘해야 큰물·가물로 인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물환경오염과 물생태계파괴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민생명안전과 인민경제 부문을 보호, 물자원을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지속 개발리용 할 수 있음."
- "올해부터 2040년까지 전국치수전망계획이 실행"
- "전망계획의 총적목표는 물에 의한 재해극복능력 제고, 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물환경 및 물생태계 보호, 통일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여 치수사업을 발전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 "올해는 전국적 범위에서 계획된 강바닥파기와 제방성토 및 장석쌓기과제 등 끝내야", "특히 청천강 새 제방건설 및 보강공사 장마철전까지 마무리"
-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단계별 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 "일군들은 현시기 치수사업에서 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야, 큰물 피해방지대책이나 세우는 것이 치수산업의 전부가 아님."

해외 대사 임명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최근 주요국가 주재 북한 대사를 임명

- 브라질 주재 대사로 송세일 임명(4.8. 외무성 홈페이지)
-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로 조영삼 임명(4.18. 외무성 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로 홍광일 임명(4.21. 외무성 홈페이지)
- 영국 주재 대사로 문명신 임명(4.21. 외무성 홈페이지)
- 스웨덴 주재 대사로 김철해 임명(4.25. 외무성 홈페이지)

o 제9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외교다변화 등 적극적인 외교 기조의 일환

- 해외 주재 대사들 임명으로 코로나 이후 위축된 대외 역량 확보에 주력

  * 대사 임명 외 4.10. 지경수 주벨라루스 북한 대사는 벨라루스에 신임장을 봉정(4.12. 노동)

- 특히, 영국, 스웨덴 등 서방국가 대사를 임명, 향후 북한의 대유럽관계 주목

2 북한매체 주요 내용(외무성 홈페이지)

o “브라질연방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송세일이 임명”(4.8.)

o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조영삼이 임명”(4.18.)

o “인도네시아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홍광일이 임명”(4.21.)

o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문명신이 임명”(4.21.)

o “스웨리예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김철해가 임명”(4.25.)

김정은 위원장,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4.19. 집속탄("산포전투부")을 탑재한 '화성-11라'형 전술미사일 시험 참관(4.20. 노동·중통)

* 김정식(당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1·2·4·5 군단장(전방군단) 참관 명시

** 김정은 위원장 딸 동행 식별(화성 지구 방문 이후 18일만)

o 4.8.에 이어 집속탄 시험, 정밀하게 광범위한 지역 타격 능력 과시

* 집속탄 : 하나의 모탄에 수많은 자탄을 담아 파괴력을 극대화한 무기

- "5기의 미사일들은 12.5~13ha 면적(축구장 18개 해당) 강타"

o 이번 무기 시험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이례적으로 전방지역 군단장과 함께 진행(전원 호명·참관 공개), 미사일의 전방지역 실전배치를 시사

※ 합참, 4.19. 06:10경 북한 신포→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포착, 140km 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0. 노동·중통)

o "미사일총국은 4월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 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

- "당중앙위 제1부부장인 김정식 동지,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대장, 제1군단장 안영환 중장, 제2군단장 주성남 중장, 제4군단장 정명남 중장, 제5군단장 리정국 중장이 참관"
- "시험발사의 목적은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 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음."
- "136㎞ 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은 12.5~13ha의 면적을 강타하면서 전투적 위력 과시"

o (김정은 위원장)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들이 개발도입되면서 우리 군대의 작전상 수요를 보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족", "고정밀 타격능력과 함께 고밀도 타격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커다란 의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형 일군상’ 제시

1 개 요

o 북한은 새 시대 인재상으로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4.20. 노동)

*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기본”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자질” △”함흥 산업건설사업소, 시멘트 생산방법을 연구 완성하여 특허권 증서를 받음” △”학위를 소유한 일군대열이 늘어난다.” 등

- 특히,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높은 전문가적 자질’이 필요함을 언급

o 북한은 인재형 일군의 자질로 ‘학습·연구·성과’를 중시하며 구체적 사례 언급

- (만경대 공작기계공장)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학습하고 있는 초급당일군들”
- (평안북도 송배전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등 과학기술 배우기 위해 노력”, ”계통병렬(병렬운전)형 자연에네르기 발전소 완공”, ”박사학위 수여”
- (함흥산업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최신 과학기술 학습”, ”시멘트 생산에 대한 기술혁신자료 《지적소유권사업발전전람회-2024》 출품”, ”특허권 증서 받아안아”
- (강계은하피복공장) ”당 일군으로 매일 30분 자체기술학습 진행”,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수준 높아져”, ”공장의 웬만한 기술적 문제에서 당적지도”
- (기타) △강서구역 청산농장 △국가관광총국 관광전람사 △평북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등 일군들은 ”과학 연구 성과 이룩, 석사·박사 학위 수여 받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0. 노동)

o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자질”,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 “해당 분야에 완전히 정통,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 “우리 당은 나라의 과학화, 정보화, 수자화의 보다 높은 목표들을 실현하는데서 일군들이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

– “일군들은 새 시대 혁명의 지휘 성원의 중요한 징표는 높은 전문가적 자질이라는 것을 명심”, “자질향상, 실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사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은 불같은 노력”

o “학위를 소유한 일군 대열이 늘어난다.”

– “강서구역 청산농장 경리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서해안 중부벌방지대에서의 영양랭상모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완성, 2월에 박사학위를 수여”, “국가관광총국 관광전람사 사장은 국제 전람회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진행”

- “평양화장품공장 지배인,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지배인, 남포시 대보잠업종자사업소 지배인 …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 박사, 석사의 학위를 수여 받았다.”
- “황해남도송배전부 지배인, 옹진광물생산사업소 지배인,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 염소제1분장장 …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 학위를 수여”

o “매일 30분 정도씩 자체 기술 학습을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꼭꼭 집행”

- “만족할 만한 높이는 아니지만 공장에서 제기되는 웬만한 기술적 문제에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당적 지도를 할 수 있게 됨.”

o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기본”, “자연에네르기발전소건설 과학기술을 습득”

- “과학기술 학습에 배가의 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등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
- “풍력, 태양 빛을 결합한 계통병렬형(병렬운전) 자연에네르기발전소 건설 성과적으로 완공”, “연구 성과를 이룩, 박사학위를 수여 받게 됨.”

o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만경대 공작기계공장 초급당 일군들”, “아는 것만큼 지도할 수 있다!”

- “당일군이 쌓아가는 지식의 탑이 높아야 생산자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지름길을 열게 되고, 단위 발전을 떠미는 당 사업을 할 수 있기에 학습”

o “발명가 당비서 함흥산업건설사업소 초급 당비서는 공업 폐설물을 이용한 시멘트 생산방법을 연구 완성하여 특허권 증서를 받음”

- “선진건설공법을 받아들여 단위가 맡은 대상건설들을 제 날자에 어김없이 완공하는데서 커다란 역할”, “《지적소유권사업발전전람회-2024》에 출품시켜 특허권 증서를 받아안았음.”

제9차 당대회 후속 연구토론회 진행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제9차 당대회 후속 조치로 4.9. 중앙연구토론회에 이어 각 도(직할시) 및 사회과학 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정책기조 해설 및 과업 관철을 독려(4.21., 4.24. 노동·중통)

- (도) △(주제) 제9차 당대회 사상·정책 체득·관철 △(참가) 지방 당·행정·근로단체 일꾼, 교육·문학예술·출판보도·혁명사적 부문 및 당 간부양성기관 이론선전 일꾼
- (사회과학 부문) △(일자) 4.23. △(주제) 제9차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의 역사적 의의 △(참가) 과학·교육 부문 및 당 간부양성기관 일꾼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1., 4.24. 노동·중통)

o 각 도(직할시) 연구토론회(4.21. 노동·중통)

-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인민의 이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과제”
-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확신성 있게 떠미는 조선혁명 고유의 불변의 이념”
- “새시대 5대 당건설 강령을 틀어쥐고 완벽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은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사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
-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전면적 국가 발전의 최전성기, 거창한 새 변혁시대를 힘차게 개척”

o 사회과학 부문 연구토론회(4.24.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를 마련한 특기할 정치적 사변”
- “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인민에게 승리자의 긍지와 자신심을 백배해 주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더 높은 단계에로 고조시켜 나가는 데서 새로운 표대를 세운 역사적인 분기점”, “인민의 위대한 힘을 최대로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필승의 투쟁방략을 천명”
-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방북

1 개 요

o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은 북한 사회안전성의 초청에 따라 4.20. 북한을 방문(4.21.-25. 노동·중통)

* △(단장)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 △(맞이) 북한 방두섭 사회안전상, 관계부문 일군들, 블라디미르 토페하 북한 주재 러시아 임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

o 4.21. 북한 사회안전상-러시아 내무장관 간 회담 및 기관간 교류계획서 체결

- 양국은 법집행 분야 성과 및 경험을 교환하고 교류협력 발전 문제를 토의

o 러시아 내무성대표단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담화 △해방탑 화환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지하철도, 원산갈마지구 등 참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1.-25. 노동·중통)

o “북한 사회안전성 초청에 따라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이 20일 평양 도착”(4.21. 노동·중통)

o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과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상 간 회담이 21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4.22. 노동·중통)

- “두 나라 안전 및 내무기관들이 법집행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환, 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 심도있게 토의”
- “회담 후 북한 사회안전성과 러시아 내무성 간 2026년-2027년 대표단 교류계획서 체결”, “사회안전성, 대표단 환영 연회 개최”

o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2일 평양의사당에서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과 담화”(4.23. 노동·중통)

o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22일 해방탑에 화환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지하철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사회안전부문 여러 단위들 참관”

o “러시아 내무성대표단, 24일 귀국”(4.25. 노동·중통)

탄부후원기금 기부자 증가

1 개 요

o 북한은 "탄부후원기금 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도(4.21. 노동)

o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열기 고조 언급 및 탄부후원기금 활성화 독려

- 최근 개설된 탄부후원기금에 다수 인원이 "자각적"으로 참가하였음을 강조
- 《삼흥전자지갑》과 같은 전자지불체계를 통하여 기금기부사업 참가 가능함을 언급

o 김정은 위원장의 천성청년탄광 연설, 최고인민회의에서 탄부들의 노동조건 및 복지 언급 이후 탄부후원기금 모금 독려로 평가

*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 중시"(3.15. 천성청년탄광 방문시 김정은 위원장 연설) △"탄광마을, 매해 2만 세대씩 4년간 건설",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과 노동보호 조건을 개선"(3.23.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1. 노동)

o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탄부후원기금 기부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기부자들이 계속 늘어"

- "탄부후원기금이 개설된지는 그리 오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 탄부들을 위해 기금기부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
- "전자지불체계 《삼흥전자지갑》을 통하여 기금기부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
- "김정은 위원장 지난 3월 천성청년탄광을 찾아", "연설에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탄부후원기금 기부사업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
-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나라의 석탄산이 높아져"

지방공업공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 활발히 전개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4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이 전개되면서 제품의 품질 향상과 품종 확대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음"을 보도(4.22. 노동)

- 특히, 사회주의 경쟁 속에 우수한 공장들의 경험과 기술의 공유·협력은 지방공업의 동시적·균형적 발전 및 지방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함을 강조
- 또한, "지방 인민의 생활 향상,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2. 노동)

o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진다."

- "식료공장과 식료공장들 사이, 일용품공장과 일용품공장들 사이, 옷공장과 옷공장들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이 고조 …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룩"
-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다같이 발전하고 전진하는 풍을 확대 조장 … 지방공업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 … 지역인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향상"
- "성천군, 숙천군, 북창군, 신양군에서는 제품의 질제고와 품종확대,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제고 등을 놓고 사회주의경쟁을 적극화하여 자랑할만한 성과들을 이룩"
- "재령군, 은천군에서는 터득한 경험과 기술을 배천군, 장연군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에 아낌없는 품을 들이고 있음."
- "함주군, 금야군에서도 자기 지역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신포시와 정평군의 새 지방공업공장들에 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국식료품전시회-2026》은 새 지방공업공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 열기를 더욱 고조", "《봄철피복전시회-2026》을 앞두고 40개 시·군들에 새로 일떠선 옷공장들 사이의 사회주의경쟁도 더욱 열기를 띠고"
- "지난해 말에 준공한 옷공장들도 …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여러 옷공장과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맹렬히 벌리면서 사회주의 경쟁분위기를 고조"

가뭄 지속 보도

1 개 요

o 북한은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에 보기 드문 가뭄현상 계속"되는 상황 보도(4.22. 노동)

- "올해에 들어 강수량이 매우 적고 일부 지역 저수지·강하천 물량 감소" 언급

o "4.30.까지 △평양, 평남, 남포, 함남, 황북 등의 일부지역 가뭄중급경보 △평북, 황남, 황북, 강원도 등의 일부지역 가뭄주의경보" 발령(4.23. 노동)

- "3.1.부터 4.20.까지 전국평균강수량 25.5mm로 평년(50.7mm)의 절반 수준",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 "가뭄지역 4.20.-30. 강수량 평년의 15~45% 등 가뭄현상 지속 예상"

o 가뭄 원인으로 "오호츠크해 고기압 강화" 지목(4.24. 노동)

- 관련하여 "농업부문 물원천 충분 확보", "관개설비 가동 위한 전력 보장", "산불 발생 방지" 등 대책마련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2.-24. 노동)

o "지금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에 보기 드문 가물현상 지속"(4.22. 노동)

-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강수량이 매우 적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저수지와 강하천의 물량 감소"

o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함경남도와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 가물(가뭄)중급경보, 평안북도, 황해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가물주의경보 발령"(4.23. 노동)

-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국평균강수량은 25.5mm로 평년(50.7mm)의 50%로 적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최소"

o "이러한 현상은 오호쯔크해고기압이 강화되며 우리 나라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4.24. 노동)

- "모든 부문, 단위에서 가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할 필요", "전력공업부문에서 관개설비 만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 보장 사업에 만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 미연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봄철나무심기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각지의 봄철나무심기 성과(1억 수천만그루 나무 심기 완료)를 보도(4.22. 노동)

* △'15-'24년 산림복구전투 마무리('25년은 완충기의 해) △식수절 계기 2차 산림복구 사업 돌입 보도(사설, 4.1.)

- 황해북도 △조림대상지의 구체적 확인 △구덩이 파기·부식토 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실시
- 평안북도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 △수종이 좋은 나무모 보장
- 황해남도·강원도·남포시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 △지역의 기후·토양 조건에 맞는 수종 선택 등 나무심기의 질적 수준 철저히 보장
- 함경남도 △단계별 계획 세우기 △노력조직과 나무모 보장 △종류별 정보당 나무 수를 정하고 식수 사업 추진

o 북한은 향후 10년간의 산림복구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산들을 쓸모 있는 산으로 만들어 국가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개조 강조

* △(1단계)원료림 나무심기 등('26~'30년) △(2단계)산림개조 지속, 생태환경보호능력 개선 등('31~'35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2. 노동)

o "전국적으로 올해 봄철에 들어와 현재까지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과 각지 산림부문 일군들은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맞게 일별, 주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 "황해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 조림대상지 선정을 구체적", "구덩이 파기, 부식토 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 "평안북도에서 … 합리적인 나무모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보장"
-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의 근로자들은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에 맞게 수종을 선택", "나무심기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보장"
- "함경남도에서는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노력조직과 나무모 보장을 실속있게", "나무 종류별에 따르는 정보당 그루 수를 바로 정하고 식수"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산림을 조성", "함경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군중적 운동으로 봄철나무심기를 추진"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상판 연결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북러 간의 두만강 자동차 다리('조로국경자동차다리')의 상판 연결식이 4.21. 현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도(4.23. 노동·중통)

- 북한은 "두만강 다리의 건설이 양국 간 친선·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인원 왕래 및 관광, 무역 등 양국간 협력을 활성해 갈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라 자평

o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지난해 4월 착공한 북한의 나선과 러시아의 하산시를 연결하는 도로교로, '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에서 교량 건설에 합의

* 기존 북러 국경에는 1959년 건설된 철도교인 '두만강철교'(북한식 '조로우정의다리')만 존재, 두만강자동차다리는 두만강철교로부터 두만강 하류 방향 415m 지점에 위치

- 전체 길이 약 5km(교량구간은 1km), 10차선이며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0대 차량 통과 가능

o 상판 연결식에 이어, 북러조약 체결 2주년인 오는 6.19. 준공될 것으로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3. 노동·중통)

o "조로국경자동차다리의 량측구간을 련결하는 작업이 21일 성과적으로 진행"

- "착공한지 1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조로 국경 자동차 다리가 연결되고 머지않아 준공의 날을 맞이"
-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 협조를 보다 확대발전"

o "조로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은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축성보강하고 인원래왕과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쌍무협력을 다각적으로 활성해"

- "조로쌍방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로 국경 자동차 다리를 완공하고 개통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 중"

원산 북러친선병원 착공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4.22. 원산에서 북러친선병원 착공식 진행을 보도(4.23. 노동·중통)

* 참석 : 북한 -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김두원(보건상), 윤정호(대외경제상) 등
러시아 - 러시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천연자원부장관), 미하일 무라슈코(보건부장관) 등

- 북한의 초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방북, 착공식 참석 및 축하연설
- 아울러 부문별 실무면담을 진행, 병원완공을 비롯한 당면 교류·협조사항 토의

* 북한 보건상 - 러시아 보건부장관 / 북한 대외경제상 - 러시아 천연자원부장관

o 북러 정상 합의* 이행 및 보건분야 장기적 협력 기반 마련 강조

* '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정상간) △'보건·의학교육·과학분야 협정'(정부간) 체결

- '관광명소에 건설되는 현대적 병원'으로 관광객 대상 의료지원 기능 강화 예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3. 노동·중통)

o "조로친선병원건설 착공식에 참가하는 로씨야 정부대표단 도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따라 22일 원산에 도착"

※ 23일 귀국,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윤정호(대외경제상)·김두원(보건상) 등 전송(4.24. 노동·중통)

o "조로친선병원건설 착공식 진행"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명사십리기슭에 조로친선병원이 일떠서게됨"
- "조로 평양수뇌상봉에서 이룩된 중요 합의사항인 조로친선병원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비상히 승화되고 있는 쌍무친선관계의 발전상"
- (김두원) "훌륭한 치료환경과 의료봉사체계를 갖춘 선진적인 보건기지", "지역인민은 물론 세계일류급 관광명소를 찾는 손님에게도 활력 더해줄 것"
- (무라슈코) "단순히 병원의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보건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유익한 협조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병원건설과 의료일군양성에서 성과 기대", "로조사이의 공고한 친선관계 상징"
- (코즐로프) "로조친선병원건설이라는 공동계획이 작성, 실행단계에 들어선데 대해 언급", "국내외의 많은 손님이 찾고있는 조선의 관광명소에 건설되는 현대적인 병원에서 환자들은 훌륭한 치료를 받게 될 것"

o "조로 두나라 사이 교류와 협력강화 위한 부문별 실무면담 진행"

- "22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명사십리 호텔에서 진행", "조로친선병원을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교류·협조사항들이 토의"

북러 정상회담 기념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상봉('19.4.25.) 7주년을 기념하여 담화 발표(4.25. 외무성 홈페이지)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첫 상봉 및 회담을 '역사적 사변'으로 평가 △'24년 6월 북러 신조약 체결 통해 양국 '동맹관계' 격상 주장
- 조국해방·창당 80주년 등 주요 계기 러시아 고위급 방북 등 고위급 교류와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 제12차 북러경제공동위 진행 등 분야별 협력 활성화 강조
-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종결 1주년(4.26.) 기념 및 북한군 참전의 의의 과시

  * 동맹관계 대내외 과시, "북러 신조약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자 국제주의 정신의 훌륭한 귀감" 언급

- 양국간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 협력 확대 강화 천명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5. 외무성 홈페이지)

o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상봉, 새시대 북러 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연 역사적 사변"

- "정상 간 상봉 및 회담에서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의 북러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격상,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전 보장 문제를 토의, 견해일치"

o "2024년 6월 평양 상봉에서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북러 친선관계가 명실공히 동맹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격상"

-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법적 기초 마련"

o "지난해 조국해방 80주년,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등 계기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통일러시아당 위원장 평양 방문, 두 나라 외무상 간 전략대화와 제12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진행 등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협조 활성화"

o "김정은 위원장 명령으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 승리적으로 작전을 종결한 1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게 됨."

o "정상 간 합의정신에 맞게 양국관계를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자 의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 기념 동향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 계기 기계화 보병부대 방문 및 박격포병 사격경기 참관(4.26. 노동·중통)

* △'32.4.25.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창건 기념일 △'18년부터 정규군 창건일(2.8.)을 건군절로 지정

- (기계화부대) "붉은기 중대운동의 고장", "사상강군만이 그 어떤 대적도 단호히 제압분쇄", "정치사상 사업, 싸움준비 완성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 영접 : 노광철(국방상), 국방성 지휘관,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군정지휘관

** 진행 : 영접 → 김일성 현지지도 사적비 헌화 → 혁명사적관 방문 → 기념촬영 → 체육경기 관람

- (사격경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훈련성과로 기념한 포사격경기 참가 구분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에 따뜻한 격려의 인사", "전군 훈련경기 강도높이 전개"

* 참가 : 노광철(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김성기(총정치국장), 국방성·대연합부대 지휘관

- 대외 메시지 없이 군 격려 및 내부 결속 행보 평가

o (기념사설) '백두산 정신을 만대에 이어나가자' 제하 "백두산 정신의 근본 핵은 수령결사옹위,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함." 언급

o (기타 행사) △당정군 간부 대성산혁명열사릉 헌화(4.25.) △근로단체 행사 △체육경기·공연 등 비정주년 수준 진행

* △(4.23.) 직맹 시낭송 모임, 여맹 중앙예술선전대 공연 △(4.24.) 여맹 무도회 △(4.25.) 당정 간부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축구경기, 음악무용종합공연, 평양시 청년학생 무도회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6. 노동·중통)

o (기계화부대 방문)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즈음하여 4월 25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연합부대를 축하방문하고 장병들을 고무격려"

- "당중앙결사옹위의 구호가 전군적으로 선참으로 울려퍼지고 붉은기중대운동의 봉화가 타오른 역사의 고장에 연합부대가 자리", "바로 여기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사상적 혈통고수, 혈통계승의 신념이 제일먼저 뿌리내림."

- “수령님과 장군님의 당군영도실록이 집성되어있는 연합부대의 지위에 맞게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싸움준비완성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함.”

o (사격경기 참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돌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관하 경보병부대 박격포병들사이의 사격경기가 4월 25일에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혁명무력에 있어서 특별히 의의깊은 명절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자랑찬 훈련성과로 기념한 포사격경기 참가 구분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
- “최근 군대의 각급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혁명의 열기가 계속 고조되고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
- “전투훈련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진행”
- “전군적으로 각급 부대별, 전문병 구분대별 훈련경기를 보다 강도높이 경쟁적인 방법으로 전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동향

1 개 요

o (준공식) 김정은 위원장은 4.26.「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준공식에 참석 (4.27. 노동·중통)

* 참석 : 조용원·조춘룡·노광철 등 당·정·군 간부, 해외작전부대·공병부대 장병과 유가족,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대표단 참석

** 식순 : 북러 국가 주악 → 김정은 위원장 연설 →푸틴서한 낭독(러 하원의장 대독) →테이프 커팅 → 유해 안치식 →참전열사탑 헌화 →기념관 관람 및 헌화 →방문록 서명 → 노획무기전시장 관람

*** 식후 : 추모음악회 '조국의 별들', 러시아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국방성 주관 유가족 위로연 진행

- (푸틴 서한) 과거 북러관계를 상기하며 파병에 사의 표명 및 신조약 이행 강조

o 김 위원장은 파병군을 추모하며 참전 정당성 강조 및 북러협력 강화 의지 표명

- "정의와 부정의 대결"에서 "미·서방의 패권주의 좌절", "피로 쓴 조러친선의 새 역사", "미래를 향한 결심 확고" 언급
- (러 하원의장 접견) "대표단 파견은 동맹관계 중시 입장 표시", "신조약 확대발전"
- (러 국방장관 접견) "국제·지역정세 의견 교환" 및 "정치군사적 협력 강화 방안 토의"

* (러 타스 보도) "북러간 장기적 군사협력 기반 구축 합의", "2027~2031 북러군사협력계획 서명 준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7. 노동·중통)

o (준공식) "정의와 존엄을 위한 성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웅적 위훈과 숭고한 정신을 길이 전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의식 거행"

- "해외작전부대들은 형제의 나라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을 난폭하게 침탈한 우크라이나 무력침범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쿠르스크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 참가하여 값비싼 승리를 쟁취", "그들은 모두 충신들이고 애국자들이며 인간 중의 참인간들"
- "쿠르스크 해방작전은 불과 몇 개월 기간에 진행된 군사활동이지만 그 결과가 가지는 전략적 의의는 대단히 큼."
- "러시아 군대와 조선인민군의 영용한 투쟁으로 하여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군사적 모험이 좌절"

- “이 기념관에 피로 쓴 조로친선의 새 역사, 피로써 전취한 정의의 새 역사를 새기였음.”

- “이는 계승의 굳건함과 우리의 의지를 상징”, “우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되여야 함.”

o (푸틴 서한) “적들이 쿠르스크의 일부 지역을 강점하였을 때 평양이 우리를 견결히 주저함이 없이 도왔음.”

-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가한 용감한 조선군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을 바친 영웅들을 추모하여 경의”

-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

o (러 하원의장 접견)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조로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과 의지의 표시”

- “담화에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조로 사이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국익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해 나가려는 의지가 다시금 확인”

o (러 국방장관 접견)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견해와 의견들이 교환,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 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

-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안전이익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정의로운 성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

김정은 위원장, 국방성 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 연주회 관람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4.28. 국방성 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관람 (4.29. 노동·중통)

* 참석 : 노광철(국방상), 김성기(총정치국장), 국방성 지휘관, 당 중앙위 일군, 성·기관·평양시 기관·기업소 일군, 군인들 관람

** 진행 : 군악대 연주 → 김정은 위원장 축하 → 기념사진 촬영

***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1946년 설립된 평양학원 군악대가 모태, 열병식·해외 국가수반 방북 등 주요 정치·군사 행사에서 취주악 담당

- 창립 70주년 연주회를 포함하여 김 위원장 집권 후 5번째 관람

o 김 위원장은 "군의 혁명적 성격과 전투적 기백이 맥박치는 연주회로 만족 표시"

- "예술단체로서가 아니라 혁명군대를 대표하는 군인집단으로 군악단에 경의"
- "국방성 군악단은 우리 국가의 얼굴이고 조선인민군의 상징"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9.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8일 국방성 중앙군악단 창립 80돐기념 연주회 관람"

- "해방 후 나라의 군사정치간부 양성기지로 창립된 평양학원 개원식에서 첫 군악소리를 울린 때로부터 장장 80년간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시대의 숨결과 강군의 기상이 맥박치는 혁명군악으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사에 긍지높은 연혁을 아로새김."

o "김정은 위원장은 출연자들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 성격과 전투적 기백이 맥박치는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 데 대하여 만족 표시"

- "항상 예술단체로서가 아니라 혁명군대를 대표하는 군인집단으로서 군악단에 경의를 표시하여 왔다고 언급"
-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우리 국가의 얼굴이고 조선인민군의 상징이라고 값높이 평가"

지방공업정책의 핵심과제 강조 및 지방의 경제발전 토대 강화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지방공업정책 수행에서의 핵심과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일꾼·당원·근로자들이 국가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을 주문(4.29. 노동)

-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소비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핵심과제 3가지를 강조
- 첫 번째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각종 소비품*의 정상적 생산보장으로, 모든 지방공업공장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원칙 하에 증산 투쟁할 것"을 주문

  * "간장, 된장, 기름과 같은 기초식품과 일용품 등 경공업 제품"

- 두 번째는 "자기 지역 특산물*의 품종 수 확대로,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성천은 명주와 약밤, 개성은 인삼, 영변은 비단, 북청은 사과, 산을 낀 곳은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신포시는 양식물 생산, 김화군은 깨고추장으로 유명)"

- 세 번째는 "생산품의 품질 제고로 지난 해 '20개 시·군 지방공장의 제품품평회'를 통해 사업 경험들이 공유되고 일꾼들과 근로자들간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의식이 정착했음"을 강조

  * 품질 향상을 위한 고리로 과학기술력 제고와 인재육성 사업(기술자, 기능공 인력 확보) 제시

o 아울러, 각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발전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 보도(4.29. 노동)

- (기술 교육) 양강도 지방공업관리국 주관 하에 갑산군·보천군 등에서 선발된 근로자들이 혜산학생교복공장 등의 고급 기능공들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등 기능공 양성 활발
- (원료기지작업반 쇄신) 개성시당위원회는 설계 인력을 개풍·판문구역 현지에 파견하여 원료기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 확보, 원료기지 농사의 건설인력 편성 등 조직사업 전개
- (기름나무림 조성) 자강도 화평군은 지방공업공장 원료를 보장하기 위해 백수십정보 면적에 민고로쇠나무, 잣나무 등 10여만 그루의 기름나무 식수와 비료·재배 관리에 총력
- (설비생산 확대) 황해북도지능제품제작소는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에 필요한 수백대의 설비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 증설과 자체 장비 제작 등을 통해 생산기일 단축에 기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9. 노동)

o “지방공업정책수행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 원천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에 대한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 “당의 지방공업정책 수행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는 우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각종 소비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것”
-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기본 열쇠로 틀어쥐고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한다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 수 있으며 자기 지역 인민들의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소비품 수요를 원만히 풀 수 있어”
- “당의 지방공업정책수행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는 또한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산물의 품종수를 늘리는 것, 또한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것”
- “지난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 품평회는 생산물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열의를 고조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

o “지역의 경제발전토대 강화를 위하여”

- “량강도에서 지방공업부문 기능공양성을 위한 기술 전습이 활발히 진행”, “도안의 해당 군들에서 선발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혜산학생교복공장에서 조직된 기술 전습이 대표적인 실례”
- “개성시에서 원료기지들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계속 박차”,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원료기지사업소의 작업반들을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어”
- “화평군, 기름나무림조성에 힘을 넣어 성과”, “봄철나무 심기 기간에 백수십 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민고로쇠나무, 잣나무 등 10여만 그루의 기름나무를 심어”
- “황해북도지능제품제작소에서 대상설비 생산에 박차”, “올해 제작소앞에는 지방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소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수백대의 대상 설비를 생산 보장해야 할 과제”
-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새로 증설하는 한편 각종 지구장비들을 창안제작”, “최적화, 최량화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탐구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대상설비 생산기일을 단축”

정보통신부문 과업 관철 노력 선전

1 개 요

o 북한 정보산업성은 제9차 당대회의 정보통신부문 과업 관철 노력 중(4.29. 노동)

- 세부 과업으로 △정보통신의 고속화·대용량화 △선진 정보통신기술 도입 △이동통신망 확대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기지국 증설 △국가자료통신망 활성화, 국가업무 정보화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29. 노동)

o “정보산업성에서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어”

- “제9차 대회는 나라의 정보산업을 한 계단 더 높이 도약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어”

o “정보통신의 고속화, 대용량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나갈 것을 요구”

o “정보전송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

- “설비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해, 새로 일떠선 새별 거리 살림집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 “선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실속있게 진척”

o “이동통신 봉사영역을 넓히고 다음 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전국 각지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증설하기 위한 공사가 활기를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빛 섬유 케이블 늘이기 실적은 벌써 80%를 넘어서고 있어”

o “국가자료통신망을 더욱 활성화”, “국가업무의 정보화 실현에서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 공고히”, “정보자원의 표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

o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병행시키는 것”,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어”

박태성 내각총리, 평안남도·황해남북도 농사실태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총리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의 농사실태를 현지요해(4.30. 노동·중통)

o 박태성 총리는 평남, 황남, 황북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가을밀·보리 생육상태 요해 및 가물피해 최소화 대책문제 협의"

- "물원천 빠짐없이 찾아 효과있게 이용", "관수체계 보강완비", "원동기, 강우기, 소형양수기 등 물주기수단 설비 총동원", "과학적 영농방법 수용" 등 지시
- "시설모에 의한 논벼재배면적 확대", "모내기에서 기계화비중 제고", "비배관리 등 영농공정 예견성 있게 추진" 등 문제 지적

o 한편, 이에 앞서 박태성 총리는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방문, "일정별 공사과제 수행 및 건설 설비·자재 적시 보장 문제 토의, 대책강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4.30. 노동·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요해"

- "총리는 △평남 문덕, 평원, 숙천 △황남 신천, 태탄, 옹진, 배천, 강령, 벽성 △황북 평산, 신계, 수안 등 농장에서 가을밀·보리 생육상태 요해 및 가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적 문제 협의"
- "물원천을 빠짐없이 찾아 효과있기 이용하고 관수체계를 더욱 보강완비 할 것과 함께 원동기, 강우기, 소형양수기 등 물주기 수단과 설비 총동원할 것, 여러 가지 영양강화제 등 과학적 영농방법 수용할 것 등 언급"
- "총리는 벼농사를 위한 준비정형을 알아보며 △시설모에 의한 논벼재배면적 확대 △모내기 기계화비중 제고 △비배관리 예견성 있게 추진 등 문제 지적"

o "이에 앞서 총리는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을 찾아 일정별 공사과제 정확히 수행, 연관부문·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자재 제때 보장 등 문제 토의 및 대책 강구"

주요 인물 동정

김정은(총비서)

3.31. 전국의 학원원아들과 섬마을, 섬초소 학생들에게 개학날을 앞두고 '해바라기' 학용품 선물(4.1. 노동·중통)

미상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 현지지도(4.3. 노동·중통)

미상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4.3. 노동·중통)

4.2. 베트남 주석에게 국무위원장 재선 축하에 대한 답전(4.3. 노동·중통)

4.1. 라오스 통룬 시술릿 주석 재당선 계기 축전 발송(4.7. 노동·중통)

4.8. 베트남 또 럼 주석 선출 관련 축전 발송(4.8. 노동·중통)

4.9. 라오스 통룬 시술릿 주석의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에 답전 발송(4.9. 노동·중통)

4.10.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4.11. 노동·중통)

4.12.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4.14. 노동·중통)

미상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재일동포자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송부(4.14. 노동·중통)

4.15. 김일성 태양절 맞이 포병구분대들사이 포사격경기 참관(4.16. 노동·중통)

4.16 100번째 생일을 맞는 리춘홍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4.16 중통)

미상 100번째 생일을 맞는 장주현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4.18. 노동·중통)

4.19.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4.20.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4.26.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사이 사격경기 참관(4.26. 노동·중통)

4.26.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 및 연설(4.27. 노동·중통)

4.26. 러시아 하원의장(뱌체슬라브 원로진) 접견 및 담화(4.27. 노동·중통)

4.26. 러시아 국방장관(안드레이 벨로우소브) 접견 및 담화(4.27. 노동·중통)

4.26.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4.28. 국방성중앙군악단창립 80돐기념 연주회 관람(4.29. 노동·중통)

고길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4.1.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4.2.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2. 조러친선병원건설착공식 참가(4.23.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김두원(보건상)

4.22. 조러친선병원건설 착공식 참가하는 러시아정부대표단 맞이(4.23. 노동·중통)
4.22. 조러친선병원건설 착공식 참가(4.23. 노동·중통)
4.22. 조러 두 나라사이 교류와 협력강화 위한 부문별 실무면담 참가(4.23. 노동·중통)
4.22. 러시아 정부대표단 귀국 전송(4.24. 노동·중통)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4.21.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22. 노동·중통)

김명수(외무성 부상)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평양 도착 시 환영(4.10. 노동·중통)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시 참석(4.10. 노동·중통)
4.10. 중국 외교부장일행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에 꽃바구니 진정 참석(4.11. 노동·중통)
4.10.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평양 출발 시 환송(4.11. 노동·중통)

김선일(도시경영상)

4.13.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화초축전 2026 개막식 참가(4.14. 노동·중통)
4.27. 화초축전-2026 폐막 참가(4.28. 노동·중통)

김성기(총정치국장)

4.15.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태양절 맞이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16.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태양절을 맞아 남자배구경기 관람(4.17.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4.28. 김정은 위원장, 국방성중앙군악단창립 80돐기념 연주회 관람시 동행(4.29. 노동·중통)

김성남(국제부장)

4.10. 김정은 위원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 시 참석(4.11.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즈음 당, 정부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김성빈(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3.31.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증서, 최우수발명가상 수여식 참석(4.1. 노동·중통)

4.28.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식 참가(4.29. 노동·중통)

김성일(외무성 조약법규국 국장)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시 참석(4.10. 노동·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4.6.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참석(4.7. 노동·중통)

김승두(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4.17. 조선과학기술총연맹 80주년 즈음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에게 축하문 전달모임 참가(4.18. 노동·중통)

4.25. 국방성 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4.26. 노동·중통)

4.28.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식 참가(4.29. 노동·중통)

김승진(국가과학원 원장)

3.31.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증서, 최우수발명가상 수여식 참석(4.1. 노동·중통)

김여정(당 총무부장)

4.6. 대통령님 무인기 유감표명 관련 대남 담화(4.6. 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김영복(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김영일(외무성 아시아1국장)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시 참석(4.10. 노동·중통)

4.10.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평양 출발 시 환송(4.11. 노동·중통)

김용환(국방과학원 원장)

4.12.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14. 노동·중통)

김일국(체육상)

4.13.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한 선수, 감독들 국가표창수여모임 참석(4.14. 노동·중통)

4.23. 2026년 봄 전국체육축전 폐막 선언(4.24. 노동·중통)

김재룡(당 조직지도부장 겸 비서)

미상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 현지지도 시 동행(4.3. 노동·중통)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4.~6. 제3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 진행(4.7.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경축 축구경기 관람(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김정관(당 비서)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즈음 당,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4.26. 노동·중통)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4.6.~8. 국방과학연구기관, 중요무기체계 시험 지도(4.9. 노동·중통)

4.12.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14. 노동·중통)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김창석(내각부총리 경공업담당)

4.8. 4.15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식 개막사(4.9. 노동·중통)

김철범(지방공업상)

4.13. 전국식료품전시회 2026 개막식 참가(4.14. 노동·중통)

4.20. 전국식료품전시회-2026 폐막식 참가(4.21. 노동·중통)

김철원(최고검찰소 소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4.16. 중통)

4.19.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 상봉(4.20. 중통)

4.25.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상봉 참가(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공식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시 동행(4.27. 노동·중통)

노광철(국방상)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태양절 맞이 포병구분대들사이 포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16. 노동·중통)

4.17.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경축 축구경기 관람(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4.26. 러시아연방 국방장관(안드레이 벨로우소브) 방북 맞이(4.27. 노동·중통)

4.26. 러시아 국방장관(안드레이 벨로우소브), 파병군 장병에게 러시아 국가표창 수여시 참가(4.27. 노동·중통)

4.26 특수군사작전 참전열사유가족을 위한 위로연 참가(4.27. 노동·중통)

4.27. 러시아연방 국방장관(안드레이 벨로우소브) 과 일행 전송(4.27. 노동·중통)

4.28. 김정은 위원장, 국방성중앙군악단창립 80돐기념 연주회 관람시 동행(4.29. 노동·중통)

리경일(내각 부총리)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7. 용성기계연합기업소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18. 노동·중통)

리광남(기계공업상)

4.17. 용성기계연합기업소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18. 노동·중통)

리룡남(중국 주재 특명전권대사)

3.31. 노동당 9차대회 기념 중국주재 대사관 연회 진행(4.4. 노동·중통)

리봉준(제11군단장)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리성은(국가영화총국 총국장)

4.9.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영화상영주간 개막사(4.10. 노동·중통)

리영길(조선인민군 총참모장)

4.15.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태양절 맞이 포병구분대들사이 포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1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리영남(당 부부장)

4.9.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노화가 미술전람회 관람(4.10. 노동·중통)

4.7.~10. 문학, 무대예술, 영화예술, 미술부문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4.11. 노동·중통)

4.14. 안주121호 종이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참가(4.15. 노동·중통)

리영식(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4.1.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4.2. 노동·중통)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리영식(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리원종(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13.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4.14. 노동·중통)

4.14.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러시아무소속직업동맹연맹 위원장 사이 회담(4.15. 노동·중통)

4.23.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즈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낭송모임 참가(4.24. 노동·중통)

리일환(당 선전선동부장 겸 비서)

미상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 현지지도 시 동행(4.3. 노동·중통)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4.10. 국가체육지도위원회 79차 확대회의 집행(4.11.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경축 축구경기 관람(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리정국(제5군단장)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리정남(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4.12. 함경남도 기공구전시회 참가(4.14. 노동·중통)

4.17. 용성기계연합기업소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18. 노동·중통)

4.26.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식 참가(4.27. 노동·중통)

리주명(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당 부부장)

4.13.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 국가표창수여모임 참석(4.14. 노동·중통)

리주영(당 부부장)

4.10. 국가체육지도위원회 79차 확대회의 참석(4.11. 노동·중통)

리창대(국가정보국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리창호(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정찰정보총국장)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리철만(내각 부총리)

3.31. 2025년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연포온실농장사이 사회주의경쟁 총화화의 참석(4.1.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리히용(당 비서)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5. 대성산혁명열사릉에 꽃송이 진정(4.26. 노동·중통)

맹영림(외무성 영사국장)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시 참석(4.10. 노동·중통)

문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13.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관람(4.14. 노동·중통)

4.17. 제25차 전국청소년들의 축전 폐막식 참가(4.18. 노동·중통)

4.20. 청년전위 신문창간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21. 노동·중통)

4.26. 재일본조선청년동맹축하단,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과 담화 참가 (4.27. 노동·중통)

민승철(당 부부장)

4.13.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참가(4.15. 노동·중통)

박광섭(해군사령관)

4.12.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14.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박광웅(당 법무부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박구호(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4.13. 4월의 명절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참가(4.17. 노동·중통)

박성철(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미상 자강도 청년들 탄원 축하모임 참석(4.6. 노동·중통)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1.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4.2. 노동·중통)

4.10. 국가체육지도위원회 79차 확대회의 참석(4.11.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4.23.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26 결승경기와 2026년 봄 전국체육축전 폐막식 참가(4.24. 노동·중통)

박태성(내각총리)

4.1.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4.2. 노동·중통)

미상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수안군·신계군·서흥군 농장 등 현지요해(4.5. 노동·중통)

미상 삼지연관광지구 및 단천발전소 건설현장 현지 요해(4.12. 노동·중통)

4.8. 아누틴 찬위라쿤 타이 수상 재선 축전 발송(4.12. 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4.16. 중통)

4.16. 태양절을 맞아 남자배구경기 관람(4.17. 노동·중통)

4.25. 대성산혁명열사릉에 꽃송이 진정(4.26. 노동·중통)

4.26. 특수군사작전 참전열사유가족을 위한 위로연 참가(4.27. 노동·중통)

미상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농사실태 현지 요해(4.30. 노동·중통)

박현철(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4.12. 함경남도 기공구전시회 참가(4.14. 노동·중통)

방두섭(사회안전상)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0. 러시아 내무성대표단 맞이(4.21. 노동·중통)

4.21. 러시아 내무상과 회담(4.22. 노동·중통)

4.22. 러시아 내무성대표단 담화시 참가(4.23. 노동·중통)

송세일(브라질 주재 특명전권대사)

4.6. 브라질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임명(4.7. 외무성 홈페이지)

신영일(당 간부부장)

미상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 현지지도 시 동행(4.3. 노동·중통)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4.25. 대성산혁명열사릉에 꽃송이 진정(4.26. 노동·중통)

신일철(당 부부장)

3.31. 2025년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연포온실농장사이 사회주의경쟁총화화의 참석(4.1. 노동·중통)

신홍철(러시아 주재 특명전권대사)

3.31. 노동당 9차대회 기념 러시아 주재 대사관 연회 진행(4.4. 노동·중통)

4.24. 김정은 위원장 방러 7주년 기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사진전시회 및 기념토론회(4.30. 노동·중통)

안금철(당 경제부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태양절을 맞아 남자배구경기 관람(4.17.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즈음 당, 정부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4.26. 노동·중통)

안영환(제1군단장)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 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안현민(당 부부장)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윤정호(대외경제상)

4.22. 조러친선병원건설 착공식에 참가하는 러시아정부대표단 맞이(4.23. 노동·중통)

4.22. 조러친선병원건설 착공식 참가(4.23. 노동·중통)

4.22. 조러 두 나라사이 교류와 협력강화 위한 부문별 실무면담 참가(4.23. 노동·중통)

4.23. 러시아정부대표단 귀국 전송(4.24. 노동·중통)

장금철(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4.6. 김여정 담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 비난 담화(4.7. 중통)

장룡식(당 부부장)

4.7.~10. 문학, 무대예술, 영화예술, 미술부문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4.11. 노동·중통)

장창하(미사일총국장)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전경철(당 부부장)

4.12.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웅변모임 참가(4.14. 노동·중통)

정경택(당 부장 겸 비서)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전승국(내각 부총리)

3.31. 2025년 10대최우수교원칭호 수여모임 참석(4.1. 노동·중통)

3.31. 2025년 2.16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혁신상,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증서, 최우수발명가상 수여식 참석(4.1. 노동·중통)

4.6.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참석(4.7. 노동·중통)

4.9. 제9차 당대회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발표(4.10. 노동·중통)

4.9.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참가(4.10.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6.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4.16. 중통)

전인철(당 부부장)

3.31. 2025년 10대최우수교원칭호 수여모임 참석(4.1. 노동·중통)

전철히(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1.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개학식 참석(4.2. 노동·중통)

전향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23.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맞이 여맹중앙예술선전대공연 관람(4.24. 노동·중통)

전현철(내각 부총리)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정경택(당 군정지도부장 겸 비서)

미상 김정은 위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정명남(제4군단장)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정성일(국가관광총국 총국장)

4.10. 평양국제관광기념품 및 건강제품전시회 개막식 참가(4.11. 노동·중통)

조용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4.22. 러시아 내무성대표단 담화(4.23. 노동·중통)

4.23.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의 주요성원들과 담화(4.24. 노동·중통)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돐 즈음 당, 정부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4.26. 노동·중통)

4.25.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하는 러시아 공식대표단 맞이(4.26. 노동·중통)

4.25. 러시아 공식대표단 해방탑 화환 진정 동행(4.26. 노동·중통)

4.25.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상봉(4.2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환영 만찬 참석(4.27. 노동·중통)

4.27. 러시아연방 공식대표단 전송(4.28. 노동·중통)

조춘룡(당 비서)

4.12.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14.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4.26.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참석시 동행(4.27. 노동·중통)

주문진(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4.22. 조러친선병원건설 착공식 참가(4.23. 노동·중통)

4.22. 러시아정부대표단 소련군추모탑 참배 동행(4.23. 노동·중통)

주성남(제2군단장)

4.19.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참관시 동행(4.20.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주창일(당 비서)

3.31. 2025년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연포온실농장사이 사회주의경쟁 총화화의 참석(4.1. 노동·중통)

4.1. 천성청년탄광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 수여식 참석(4.2. 노동·중통)

4.13.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관람(4.14. 노동·중통)

4.14.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가(4.15.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20. 청년전위 신문창간 80돐 기념보고회 참가(4.21. 노동·중통)

4.26. 재일본조선청년동맹축하단,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과 담화 (4.27. 노동·중통)

주철규(당 농업부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4.16. 노동·중통)

지경수(벨라루스 주재 특명전권대사)

4.10.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4.12. 노동·중통)

지명준(당 부부장)

4.13. 김일성 생일 맞이 화초축전 2026 개막식 참가(4.14. 노동·중통)

최광일(제91군단장)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 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축하방문시 동행(4.26. 노동·중통)

4.25.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맞이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 사이 사격경기 참관시 동행(4.26. 노동·중통)

최선희(외무상)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평양 도착시 환영(4.10. 노동·중통)

4.9.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및 환영연회(4.10. 노동·중통)

4.10.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평양 출발 시 환송(4.11.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최창학(당 제1부부장)

4.6.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사(4.7. 노동·중통)

미상 혁명전사 생일 가정방문 및 축하방문(4.9. 노동·중통)

4.9.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미술전람회 개막식 참석(4.10. 노동·중통)

4.9.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영화상영주간 개막식 참석(4.10. 노동·중통)

4.23.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26 결승경기와 2026년 봄 전국체육축전 폐막식 참가(4.24. 노동·중통)

최춘길(당 민방위부장)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최학근(당 부부장)

4.7.~10. 문학, 무대예술, 영화예술, 미술부문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4.11. 노동·중통)

최희태(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4.13. 김일성 생일 맞이 화초축전 2026 개막식 참가(4.14. 노동·중통)

한광상(당 경공업부장)

미상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 요해 시 동행(4.3.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주요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6. 노동·중통)

4.15. 김일성 생일 맞아 장수봉팀과 월미도팀 사이 남자축구경기 관람(4.16. 노동·중통)

한종혁(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3.31. 2025년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연포온실농장사이 사회주의경쟁 총화화의 참석(4.1. 노동·중통)

4.14.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참가(4.14. 노동·중통)

현은철(문화상)

4.6.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참석(4.7. 노동·중통)

4.9. 김일성 탄생 114돐 맞이 중앙미술전람회 개막사(4.10. 노동·중통)

허종만(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4.13. 4월의 명절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참가(4.17. 노동·중통)

현은철(문화상)

4.14. 김일성 114번째 생일 맞이 웅변모임 참가(4.14. 노동·중통)

월간 보도일지

4.1.(수)

대내
-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소집 결정 및 호소문 발표(노동·중통)
- o 새학기 맞이 교육분야 중요성 강조, 개학 동향 연일 보도(노동·중통)
- o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올해의 투쟁 과업(노동)

대남

대외
- o 러시아 TAS 통신사대표단 귀국(노동·중통)

4.2.(목)

대내
- o 김일성 혁명사상의 과학성 강조(노동)
- o 전국의 대학, 학교들에서 2026년 새 학년도 시작, 개학모임 진행(노동·중통)
- o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 o 이란대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관련 꽃바구니·축하편지 전달(노동·중통)

4.3.(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전투위훈기념관 건설현장 현지지도(노동·중통)
- o 김정은 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구역 봉사시설 현지요해(노동·중통)
- o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과업 관철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확대회의(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 축전(국무위원장 재추대)에 답전(노동·중통)

4.4.(토)

대내
- o 자력갱생 사상 강조(노동)
- o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중통)
- o △직업총동맹 중앙위 제8기 제16차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제9기 제14차 △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제7기 제1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노동·중통)

4.5.(일)

대내
- o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 o 남포시에서 올해 180여 정보의 산림개조, 수십만그루의 나무심기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노동·중통)
4.6.(월)	
대내	o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 강조 사설(노동) o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년 계획완수 선전(노동·중통)
대남	o 김여정 부장, 李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 관련 담화 발표(4.6. 중통)
대외	
4.7.(화)	
대내	o 제3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진행(노동·중통) o 세계 보건의 날 계기 의료일군대렬강화 사업 전개 선전(노동)
대남	o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장, 첫 대남 담화 발표(중통)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라오스 주석(통룬 시술릿) 재당선 계기 축전 발송(노동·중통)
4.8.(수)	
대내	o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념 선전(노동) o 성·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노동·중통)
대남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서기장(또 럼) 주석 선출 관련 축전 발송(노동·중통)
4.9.(목)	
대내	o 국방과학원·미사일총국 중요무기체계 시험 진행(중통) o 가뭄피해 방지 등 농업생산력 향상 대책 강조(노동) o 남포시 온천군 청동기·신석기 시대 소금생산 유적 최초 발굴(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예고(노동, 4.8. 중통)
4.10.(금)	
대내	o 제9차 당대회 사상·정책 관철 중앙연구토론회 진행(노동·중통) o 김일성 생일 관련 △중앙미술전람회 △노(老)화가 미술전람회 등 개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최선희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및 환영 연회(노동·중통)
4.11.(토)	
대내	o 문학, 무대예술, 영화예술, 미술부문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진행(노동·중통) o 평양국제관광 기념품 및 건강제품 전시회 개막(노동·중통) o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제79차 위원회 확대회의 개최(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노동·중통)
- o 왕이 외교부장 일행,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원 꽃바구니 진정 및 귀국(노동·중통)

4.12.(일)

대내
- o 박태성 내각총리, 삼지연 산악관광지구 건설장과 준공을 앞둔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장 현지요해(노동·중통)
- o 전국적으로 수유나무림 개조사업 전개 선전(노동)
-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사진전람회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 예술단들 공연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주벨라루스 북한 대사, 벨라루스 대통령에 신임장 봉정(노동·중통)

4.13.(월)

대내
- o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사상의 힘 강조(노동)
- o 2025년 부문별, 지역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선정(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20살 미만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북한 축구팀 준결승 경기에 진출(노동·중통)

4.14.(화)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노동·중통)
-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모임 진행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등(노동·중통)
- o《김일성전집》증보판 제38권 출판(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재일동포 자녀 대상 교육원조비·장학금 지원(노동·중통)
- o 외무성 대변인, 미얀마 대통령 취임 지지 기자 문답(중통)
- o 2026년 아시아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획득(노동·중통)

4.15.(수)

대내
-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노동·중통)
- o 안주121호 종이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이 꽃바구니 발송(노동·중통)
- o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일본 2026 외교청서」비난 담화(중통)
- o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위원장 - 러시아 무소속 직업동맹연맹위원장 회담(중통)

4.16.(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태양절 맞이 포병구분대사이 포사격경기 참관(노동·중통)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여성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 진행 등(노동·중통)
대남	
대외	o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20살 미만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결승 진출(노동·중통)
4.17.(금)	
대내	o 기간공업으로서 금속공업 중요성 강조(노동) o 청년사업에서의 청년동맹의 주도적 역할 주문(노동) o 치수전망계획 단계별 과업의 책임적 수행 강조(노동)
대남	
대외	
4.18.(토)	
대내	o 노동당 중앙위 창립 80년 관련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노동·중통) o 용성연합기업소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나이지리아 주재 북한 조영삼 대사 임명(외무성 홈페이지)
4.19.(일)	
대내	o 청년전위 당의 위업관철 성과 선전(노동) o 양강도에서 보천내곡발전소건설 추진(중통)
대남	
대외	o 김일성 생일 114년 관련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중통)
4.20.(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노동·중통) o 철도운수부문 수송성과 선전(중통)
대남	
대외	o 러시아 무소속직업동맹연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여러곳 참관(노동·중통)
4.21.(화)	
대내	o 제9차 당대회 제시 사상 체득·관철을 위한 각 도 연구토론회 진행(노동·중통) o 앞그루 농사 가뭄피해 최소화 강조(노동) o 탄부후원기금 기부자 증가 보도(노동)
대남	

대외	o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방북(노동·중통)
4.22.(수)	
대내	o 가뭄 피해 방지에 모든 역량과 수단 총동원 주문(노동) o 김책제철연합기업소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o 청진제강소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사회안전상 – 러시아 내무상 회담 진행(노동·중통) o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축하단·상공인대표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o 제9차 당대회 기념연회 북한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노동·중통)
4.23.(목)	
대내	o 간부들에게 '당정책 무조건 관철' 요구(노동) o 경제 지도관리에서 중시해야 할 사안 강조(노동)
대남	
대외	o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 진행(노동·중통) o 조용원(국무위 제1부위원장),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면담 및 부분별 실무면담 진행(노동·중통) o 북러 국경 자동차다리연결작업 진행(노동·중통)
4.24.(금)	
대내	o 제9차 당대회 과업 결정 관철 관련 당원 투쟁 독려(노동) o 제9차 당대회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o 러시아 정부 대표단 귀국(노동·중통) o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여러곳 참관(노동·중통) o 조용원(국무위 제1부위원장),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면담(노동·중통)
4.25.(토)	
대내	o '백두산정신' 계승 강조 사설(노동) o 인민군 창건 94년 관련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김일성·김정일 인도네시아 방문 61년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기념행사들 진행(노동·중통) o 러시아 내무성 대표단 귀국(노동·중통)
4.26.(일)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인민군 창건기념일 관련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 방문 및 사격경기 참관(노동·중통) o 인민군 창건 94년 관련 △축구경기 △국방성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등(노동·중통)
대남	

대외 o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하는 러시아 공식 대표단, 평양 도착 및 해방탑 화환 진정(노동·중통)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면담(노동·중통)

4.27.(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과 준공식 참석 및 연설(노동·중통)
o 함경남도승마구락부(클럽)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o 평양가방공장창립 1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국방상 접견 및 만찬회 진행(노동·중통)
o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에게 러시아 국가표창 수여(노동·중통)

4.28.(화)

대내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 정치문화사업 진행(노동·중통)
o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개막(노동·중통)
o 개성시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 군중적 전개(중통)

대남

대외 o 러시아 공식대표단 귀국(노동·중통)

4.29.(수)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국방성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 기념 연주회 관람(노동·중통)
o 각계각층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노동·중통)
o 산림복구 등 사회주의애국림운동 전개(노동·중통)

대남

대외 o 총련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4.30.(목)

대내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관련 '애국청년' 부각(노동·중통)
o 박태성 총리, 평안남도 등 농사실태 및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현지요해(노동·중통)
o 가뭄 관련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쟁 강조(중통)

대남

대외 o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7주년 관련 사진전·토론회 진행(노동·중통)

이달의 약사

- **04.01.** 세금제도 폐지의 날(1974년 3월 21일 제정)
- **04.0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2017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법령(2012년 9월 25일 공포)
- **04.03.** '4.3 제주도 인민봉기(제주 4.3 사건)' 기념일(1948년 4월 3일 발생)
- **04.03.** 중립국 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 철수(1993년)
- **04.04.** 청명절 ※ 2012년부터 민속명절로 지정
- **04.05.** 보건절(1980년 5월 5일 제정)
- **04.05.** 「천도교」창도일(1860년)
- **04.05.** 북한,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2009년)
- **04.06.** 김일성,「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제시(1993년)
- **04.08.** 체신절(1972년 1월 13일 제정)
- **04.09.** 「환경보호법」채택(1986년)
- **04.09.** 북한 헌법 개정(2009년)
- **04.0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일
  ※ 1993년 4월 9일 최초 추대(1998년 9월 1일, 2003년 9월 3일, 2009년 4월 9일 재추대)
- **04.11.**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2002년)
- **04.11.** 김정일 '영원한 당 총비서',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2012년)
- **04.13.**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2012년)
- **04.13.** 김일성 '대원수' 칭호 수여(1992년)
- **04.13.**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2012년)
- **04.13.** 「남북 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채택(2004년)
- **04.14.** 「조선 과학기술 총연맹」결성(1946년)
- **04.15.** '태양절', 김일성 출생일(1912년) ※ 1997년 7월 8일, '태양절'로 명명
- **04.16.** 한미 정상, 4자회담 제의(1996년)
- **04.18.** 「사회주의 노동법」채택(1978년)
- **04.18.** 「민족대단결 5대 방침」제시일(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제시)
- **04.18.** 제13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개최(2007년 4월 18일 ~ 22일, 평양)
- **04.19.** '4.19 혁명' 기념일(1960년)

- **04.20.**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창간(1946년)
- **04.20.** 김정일 '원수' 칭호 수여일(1992년)
- **04.21.** 강반석(김일성 母) 출생일(1892년)
- **04.22.** 용천역 폭발 사고 발생(2004년)
- **04.23.** 제3차 노동당 대회 개최(1956년 4월 23일 ~ 29일)
- **04.24.** 탄부절(1990년 10월 31일 제정)
  ※ 1996년부터 7월 7일에서 4월 24일로 변경
- **0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 당 정치국 결정서(2018.1.22.)에 따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변경
- **0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2018년, 판문점)
- **04.28.** 군사 정전위원회 북한측 대표단 철수(1994년)
- **04.29.**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일(1976년)
- **04.29.** 「농업 현물세제 폐지법령」 공포일(1966년)
- **04.29.** 「토지법」 채택일(1977년)
- **04.29.** 여자탁구 남북단일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1991년)
- **04.30.**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년, 1~2차)